

Annual Report

2 0 2 4

KBS 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4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5
5. 정보공개 안내	104
※시청자 권익 보호란?.....	112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15
7. 시청자 청원	117
8. 제작진 답변	119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26
- KBS 민원처리규정	131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36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39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기준	144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일(1일, 15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17명이 주간 2교대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전일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24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4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240,771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173,688건, 72.1%)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륜
2024년	240,771	▲ 3,212	1.35%
2023년	237,559	▼ 25,841	-9.81%
2022년	263,400	▼ 23,216	-8.10%
2021년	286,616	▼ 57,734	-1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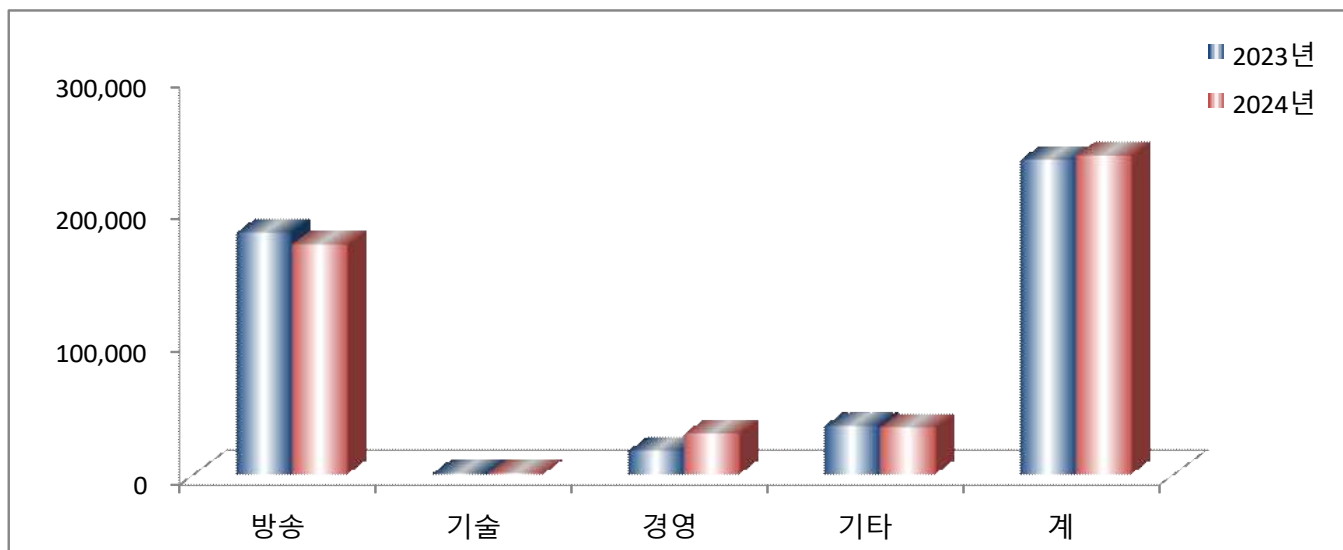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4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콜백	계
1		16,157	35	1,438	3,354	20,984
2		14,644	45	1,167	3,481	19,337
3		14,293	52	1,254	3,800	19,399
4		12,205	41	1,175	3,137	16,558
5		12,654	31	1,156	2,070	15,911
6		12,791	40	926	2,323	16,080
7		13,328	122	5,381	2,989	21,820
8		21,016	109	6,042	3,917	31,084
9		13,358	96	4,133	2,959	20,546
10		13,882	102	3,582	2,530	20,096
11		13,279	98	2,310	2,170	17,857
12		16,081	67	2,224	2,727	21,099
계	건	173,688	838	30,788	35,457	240,771
	비율	72.1%	0.3%	12.8%	1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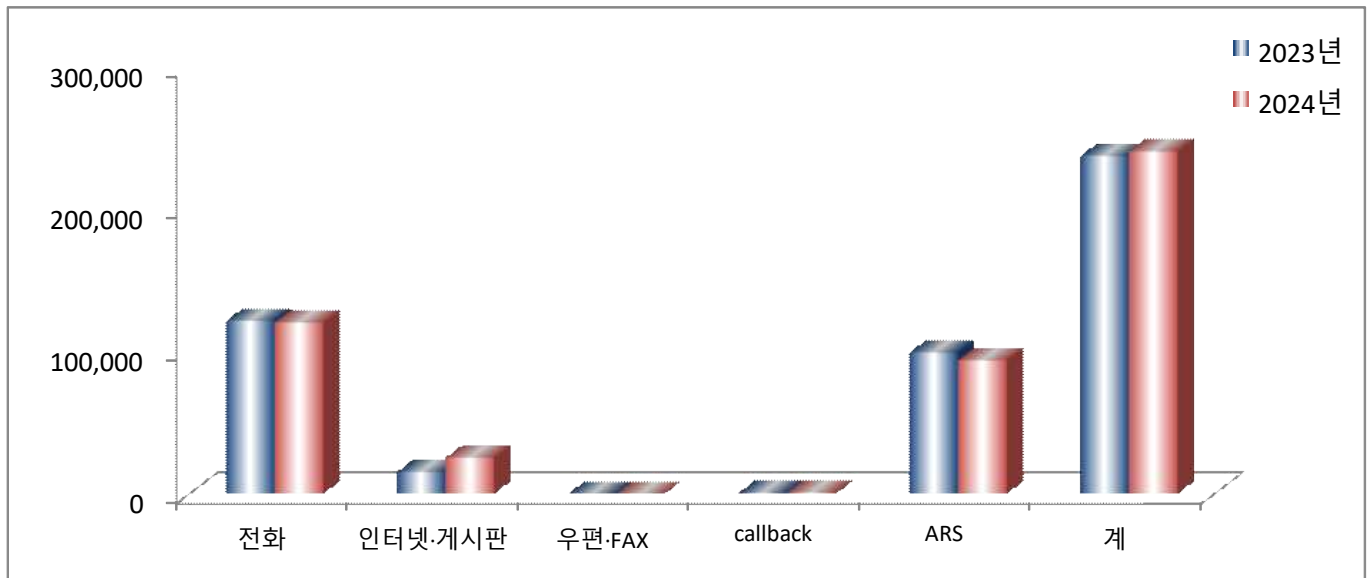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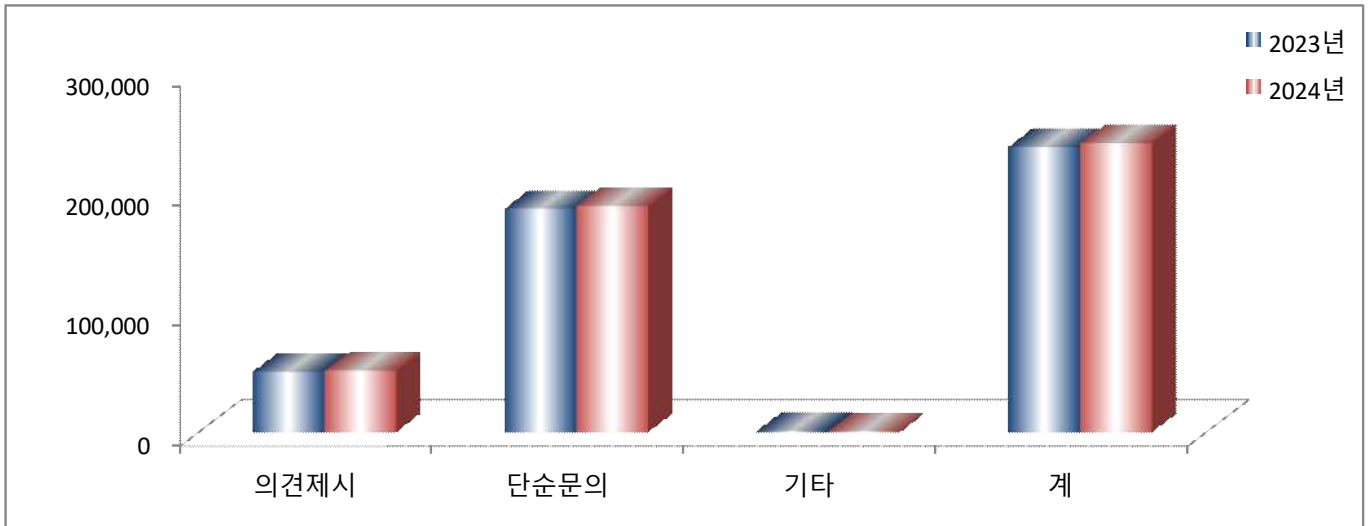
■ 2024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콜백	ARS	계
1		10,184	1,651	5	92	9,052	20,984
2		9,232	2,222	6	88	7,789	19,337
3		9,664	2,457	3	83	7,192	19,399
4		8,292	1,608	2	88	6,568	16,558
5		8,066	808	-	85	6,952	15,911
6		7,545	1,201	-	76	7,258	16,080
7		12,211	1,572	4	57	7,976	21,820
8		13,232	8,978	-	67	8,807	31,084
9		10,747	1,520	-	63	8,216	20,546
10		10,669	1,084	1	56	8,286	20,096
11		9,074	1,032	1	48	7,702	17,857
12		11,568	1,356	-	120	8,055	21,099
계	건	120,484	25,489	22	923	93,853	240,771
	비율	50.0%	10.6%	0.0%	0.4%	3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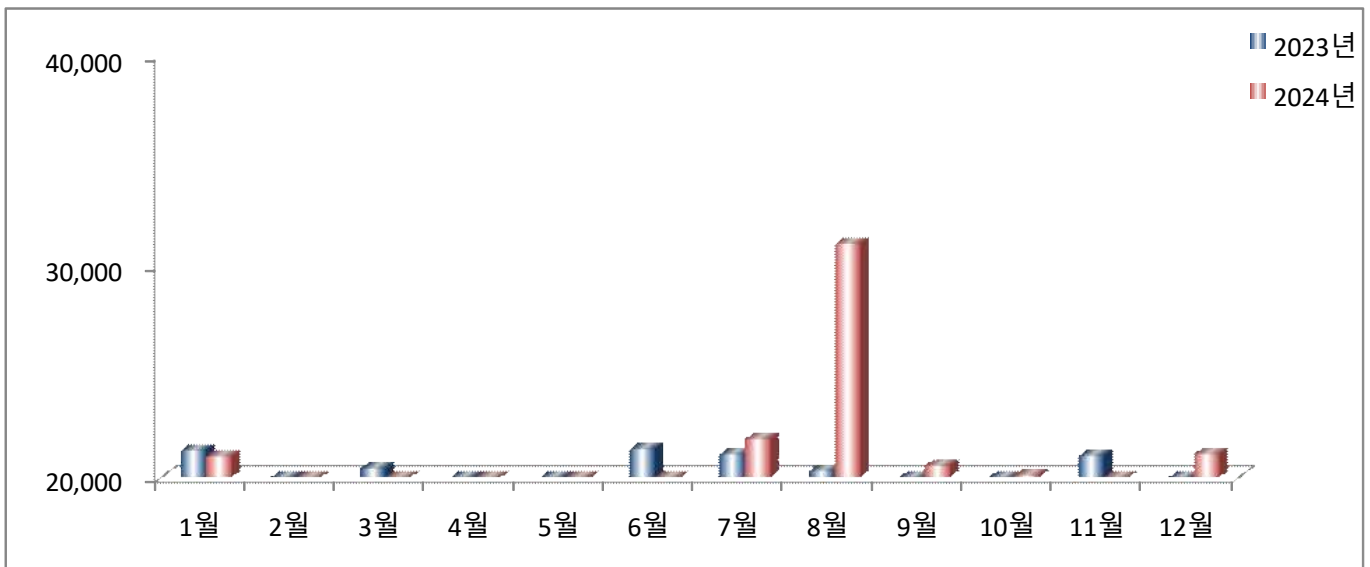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23년, 2024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23년, 2024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4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99	292	3	96	51	35	26	-	-	602	
2	222	69	-	75	51	17	27	-	-	461	
3	40	39	-	79	119	28	29	-	3	337	
4	69	51	16	82	59	15	26	-	4	322	
5	76	19	-	84	46	29	37	-	19	310	
6	55	64	-	71	41	8	34	-	-	273	
7	197	19	15	107	26	11	25	-	2	402	
8	122	54	16	5,499	26	12	30	-	2	5,761	
9	37	24	5	95	47	24	24	-	-	256	
10	76	101	51	108	33	15	29	-	1	414	
11	48	24	-	205	49	27	27	-	-	380	
12	345	245	-	94	48	14	35	-	-	781	
계	건수	1,386	1,001	106	6,595	596	235	349	-	31	10,299
	비율	13.5%	9.7%	1.0%	64.0%	5.8%	2.3%	3.4%	0.0%	0.3%	10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KBS 뉴스 7	휴스팀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182
2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뀐 시간대가 1TV에서 방영되는 「아침마당」과 겹쳐서, 두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청할 수 없게 됐다.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는 고령층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편성이다. 오전 10시에 고정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시청해온 시청자들을 위해 편성을 원래대로 돌려주기 바란다.	54
3월	뮤직뱅크	1197회 뮤빗 K-POP 팬투표에서 NCT 태용의 'TAP(탭)'이 후보에서 누락됐다. 3월 6일로 투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표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후보 등록을 해주기 바란다.	74
4월	사사건건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공격적이다. 상대인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에 무조건 반박만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비판을 한다. 서 변호사가 여당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이러한 태도들이 보기 불편하다.	14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개는 훌륭하다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 시청자이다. 강형욱 씨 논란으로 인해 결방이 된 것 같은데, 애청자로서 많이 아쉽다. 해당 방송을 통해 강아지 다루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 앞으로는 꼭 결방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24
6월	KBS 뉴스(홈페이지)	본인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기사를 다루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동성결혼을 아름답게 포장하면 좋은 점만 보게 된다. 본인들이 좋아서 동성결혼을 하는 것까진 말리지 않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25
7월	미녀와 순정남	본인의 할머니의 연세가 103세이다. 오직 KBS 드라마만 시청하시는데, 이날 해당 드라마가 결방이 된 줄도 모르고 자정까지 기다리다 주무셨다고 한다. KBS 드라마만 시청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이 많은데, 결방 없이 편성되었으면 한다.	68
8월	KBS 중계석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나비부인'이 방송됐다. 기모노를 입은 여배우가 나오는 등, 광복절이 아닌 날에도 보기 불편한 장면이 광복절에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광복절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5,433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이슈 픽 쌤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슈카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성인물 시청 권리를 논하는 영상을 올렸다. 최근 '딤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범죄로 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인터넷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슈카 씨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36
10월	KBS 뉴스 9	집회에 참여했던 시청자다. 사전 허가를 받은 집회이고, 질서정연했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회로 교통 정체를 빚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안타까웠다. 또한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집회에 참여했던 것인데, 집회의 목적이 상세히 다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77
11월	다큐 인사이드	방송을 끝까지 시청했다. 동성혼을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이며,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성혼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고, 선택권이 없었던 쌍둥이 아이들도 안타깝게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41
12월	KBS 뉴스특보	광화문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뉴스가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 위주로 보도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모든 뉴스들이 편파적이 된 것 같다. KBS에 실망이 크다. 뉴스를 시청하며 너무 많이 울었다.	76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7]	182	휴스택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45	이날 지진해일 예측정보를 알려주는 자료화면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 반면 일본에선 지진해일 주의보를 보도하며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했다.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실수에 실망스럽다.
2TV [고려 거란 전쟁]	27	역사를 다룬 드라마라 항상 기다리며 시청한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2023 KBS 연예대상」편성으로 결방하더니, 이번 주에는 「2023 KBS 연기대상」편성으로 결방이 되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9	이날 9시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도하던 중,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들어간 자료화면을 보여줬다. 앞으로는 주의해주기 바란다.
1TV [우당탕탕 패밀리]	15	이날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식 중계로 해당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속상했다. 일일연속극은 말 그대로 매일 방송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결방이 된다면 '띄엄띄엄 연속극'이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14	평소 「가요무대」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토요일인 이날 저녁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처음에는 방송시간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토요일 저녁 8시는 가장 중요한 황금시간인데 재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 다큐멘터리 등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1TV [KBS 뉴스]	11	전두환 씨의 호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인물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1TV [아침마당]	10	이날 가수 박상철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아침마당」은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외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상철 씨를 출연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불편하다.
1TV [KBS 뉴스특보]	8	KBS만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했다. 타 방송사에서는 특보가 편성됐는데,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에서는 특보 편성이 없어 답답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특보를 편성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TV [아침마당]	7	80대 고령의 시청자로 매일 오전 「아침마당」을 시청한다. 퀴즈 코너의 정답을 매번 알지만, 어플 사용에 능숙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나이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참여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2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4	바뀐 시간대가 1TV에서 방영되는 「아침마당」과 겹쳐서, 두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청할 수 없게 됐다. 두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는 고령층 시청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편성이다. 오전 10에 고정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시청해온 시청자들을 위해 편성을 원래대로 돌려주기 바란다.
1TV [다큐 인사이트]	43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이 불발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했다.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큰 사건이고, 10주기를 맞아 해당 참사를 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해서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40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며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정권에 맞서 날카로운 진행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9시 뉴스에서도 하차하길 바란다.
1TV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20	설날 오전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는데, 대통령 특별대담 재방송이 편성되어 실망스러웠다. 이미 했던 방송인데 황금시간대에 왜 재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방송 기자회견도 아닌 녹화방송의 재방송을 굳이 이 시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TV [해 볼만한 아침 M&W]	18	아침마다 출근을 준비하며 시청했다. 경제부터 지리, 국제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전해주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방송이 사회와 시청자 간의 일종의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폐지가 되어 소통 창구가 닫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	18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씨름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다.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결승 마지막 한 판이 남은 상황에서 편성 관계로 중계를 중단했다. 정규방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승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을 조금씩 뒤로 미루더라도 결승전을 끝까지 보여주었어야 한다.
2TV [고려 거란 전쟁]	17	역사에 대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내용도 흥미진진하여 항상 기다리는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대하드라마는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1TV [특집 사사건건]	13	전남에 사는 시청자이다. 지금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석 달 후로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 사이 병세가 악화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는 모습으로 보여 화가 난다.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30년 넘게 시청해왔다. 우선「아침마당」과 방송시간이 겹쳐 시청이 어렵다. 또한 주부들은 아침에 집안일을 마친 후 오전 10시 정도부터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변경된 시간대는 주부 시청자들을 고려한 편성이 아니다. 기존대로 다시 10시로 옮겨주기 바란다.
1TV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8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없이, 사전 녹화로 대담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기자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지 않고 녹화 방송을 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중계 대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뮤직뱅크]	74	1197회 뮤빗 K-POP 팬투표에서 NCT 태용의 'TAP(탭)'이 후보에서 누락됐다. 3월 6일로 투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표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후보 등록을 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9	김신영 씨가 진행자로 섭외된 이후 꾸준히 재미있게 시청해 왔다. 그런데 김신영 씨가 해당 방송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신영 씨가 잘 웃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하차를 반대한다.
2TV [고려 거란 전쟁]	8	KBS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최종회를 시청했는데, 정말 잘 만든 방송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운이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방송을 통해 전달한 점이 감사하다. 대하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은 KBS밖에 없다. 추후에도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줄 것을 기대한다.
1TV [전국노래자랑]	7	진행자가 남희석 씨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날 시청했다. 그런데 이날 방송까지 김신영 씨가 진행한다고 하여 다소 실망스러웠다. 남희석 씨의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속히 진행자가 교체되었으면 한다.
1TV [전국노래자랑]	6	김신영 씨가 해당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해 선생님의 진행이 너무 익숙했던 터라 김신영 씨한테 적응을 못했으나, 현재는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데 왜 진행자를 교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청률이 떨어져서 교체한다는데, 시청률이 떨어질 때마다 진행자를 교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행자 교체를 반대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8000회 특집 6시 내고향]	6	갓 성인이 된 20세 시청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청하던 「6시 내고향」이 벌써 8,000회가 되었다니 감동적이다. 항상 할머니와 함께 시청했는데 이제는 혼자 보게 되어 시청할 때마다 눈물 나는 방송이기도 하다. 가족 같고 이웃 같은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1TV [인간극장]	6	본인의 고향이 남원인데, 이번 주 주인공이 남원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칼이 필요해 구매하려고 한다. 고집스럽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칼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많이 팔아주어야 자긍심이 생길 것 같다.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점이 대단한 것 같다.
2TV [2024 KBS 프리미어 김호중 더 심포니]	6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본인뿐 아니라 주부들이 난리가 났다. 지방에 살아서 직접 방청하진 못했지만, TV로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이런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TV [6시 내고향]	6	해당 방송을 통해 항상 도움 받고 있다. 이날 참문어가 소개되었는데, 배에서 잡아서 바로 판매하니까 싱싱하고 맛있을 것 같아 구매하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본인이 무릎이 안 좋는데 몸에 좋다는 '홍화순'이 소개되어 먹어보려고 한다. 반가운 고향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1TV [KBS 뉴스 9]	5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뉴스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편파적인 보도가 많다. 공영방송이므로 공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사사건건]	14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공격적이다. 상대인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에 무조건 반박만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비판을 한다. 서 변호사가 여당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이러한 태도들이 보기 불편하다.
2TV [뮤직뱅크]	14	평소 어머니와 함께 시청한다. 다양한 가수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 노래 듣는 것을 즐기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가급적이면 결방이 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13	이날 방송부터 진행을 맡게 된 남희석 씨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지난 번 진행자도 그렇고, 이번 진행자도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재미있고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행을 맡았으면 좋겠다.
2TV [2024 프로야구]	13	이날 캐스터와 해설자 모두 한화에 우호적인 편파 중계를 하여 야구팬으로서 불편함을 느꼈다. 심지어 기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중계를 했고, 그로 인해 경기를 집중해 시청하기 어려웠다.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9	송해 선생님이 진행을 너무 잘했기 때문인지, 이전 진행자인 김신영 씨와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남희석 씨의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능력 있는 인재가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8	총선 관련 보도를 시청하다 보면 편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여당에는 우호적인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다.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7	이번 총선 투표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투표용지가 두 장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두 개를 찍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례대표 용지에는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효표가 대거 나올 우려가 있다. 고령층 유권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동네 한 바퀴]	7	평소 즐겨 시청한다. 이날 서울 지역의 수제 어묵집과 간판 없는 남산 순두부 등이 소개됐는데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TV [전국노래자랑]	6	참 좋은 방송이며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다만 일요일 낮 편성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방송도 교회에 다녀오느라 시청하지 못했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수지맞은 우리]	6	재미있게 시청 중인 드라마이다.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쉽다.

5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개는 훌륭하다]	24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 시청자이다. 강형욱 씨 논란으로 인해 결방이 된 것 같은데, 애청자로서 많이 아쉽다. 해당 방송을 통해 강아지 다루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 앞으로는 꼭 결방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김호중 출연 반대]	18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17시간 후에 자수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방송 출연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제작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2TV [살림하는 남자들]	13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밖에 있다가 정신없이 뛰어 들어왔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다음 주부터는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1	유익한 정보를 주는 방송이라 매일 시청하던 프로그램인데 김지선 씨가 출연하고 너무 화가 난다. 교수님들의 말씀에 "네네~, 음~"이라며 반말과 비슷한 추임새를 많이 넣는데 듣기 불편하다. 지난주에도 추임새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 김재원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으로 잘 시청하던 프로그램을 패널 김지선 씨 때문에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꼭 시정해 주기 바란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8	이날 배우 김보성 씨가 여성 출연자들과 함께 산에서 불을 피워 바비큐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산에서 흡연만 해도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줘도 되는 것 인지 의문이 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피도 눈물도 없이]	7	배도은(하연주 분)이 이해원(이소연 분)의 아들을 납치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어떻게 언니의 아들을 납치해서 본인 아들인 척 행세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개는 훌륭하다]	7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현재 강형욱 씨가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인지 결방이 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아직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계속 편성해 주었으면 한다.
1TV [수지맞은 우리]	6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수지맞은 우리」인데, 진나영(강별 분)의 악행이 너무 지나쳐 일주일간 시청하지 않았다. 이날 다시 시청했는데 여전히 언니인 진수지(함은정 분)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모습이 무서울 정도다. 또한 출생의 비밀, 불법촬영과 유포 같은 내용도 진부하다. 과한 설정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5	대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매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김지선 씨가 목소리가 너무 크고, 본인이 주가 되어 진행자들조차 말할 수가 없다. 또한 교수님들의 말씀에 “어~, 어~”라며 반말과 비슷한 주임새를 넣는데 듣기 불편하다. 보조역할 정도로만 참여해주기 바란다.
1TV [일꾼의 탄생]	5	개그맨 미키광수 씨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요즘 해당 프로그램에 미키광수 씨가 계속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초창기부터 열심히 일했던 출연자가 나오지 않으니 아쉽고, 앞으로는 계속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

6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KBS 뉴스(홈페이지)]	25	본인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기사를 다루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동성결혼을 아름답게 포장하면 좋은 점만 보게 된다. 본인들이 좋아서 동성결혼을 하는 것까진 말리지 않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1TV [일꾼의 탄생]	11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준다는 기획의도가 좋았다.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생각했다. 본인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된다고 전화가 왔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종영이 되어 아쉽고, 시즌2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10	지난 21일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KBS에서 해당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아 의아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중계했어야 한다.
2TV [경제콘서트]	8	이날 박근혜 IBK 투자증권 부장이 SM 주가 하락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언급했다.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 공영방송에 출연해 언급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1TV [KBS 뉴스 9]	8	이날 진행자가 '경남 의령'을 '경북 의령'으로 잘못 말했다. 9시 뉴스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져 실망스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추적 60분]	7	모아타운의 실태를 추적한다면서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다뤘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 투기를 했다는 식의 내용은 옳지 않다. 방송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위주로 제작되었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가구나 단독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다. 한쪽의 의견만 담은 편파적인 방송이었다.
1TV [6시 내고향]	7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좋은 제품이 소개되면 자주 구매한다. 이날 경남 양산의 당근이 소개됐는데 좋아 보여서 구매하려고 한다.
1TV [특집 KBS 뉴스 9]	6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가능성만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은 것은, 자원보다 개발비가 더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실효성을 따져서 제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다큐 인사이드]	5	'치킨 랩소디'를 너무 잘 봤다. 컴퓨터로 메모까지 남기면서 시청할 정도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KBS가 음식 다큐멘터리를 특히 잘 제작하는 것 같다. 치킨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다. 어떻게 취재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유익했다.
1TV [특별 생방송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	5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주는 KBS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예전에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으니 아프리카를 많이 도왔으면 한다. 개막식 열리는 장소도 화려하고 예뻐서 보기 좋다. KBS에서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편성해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미녀와 순정남]	68	본인의 할머니의 연세가 103세이다. 오직 KBS 드라마만 시청하시는데, 이날 해당 드라마가 결방이 된 줄도 모르고 자정까지 기다리다 주무셨다고 한다. KBS 드라마만 시청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이 많은데, 결방 없이 편성되었으면 한다.
1TV [수지맞은 우리]	18	노인들은 일일연속극을 꼭 시청해야 한다. 그런데 올림픽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노인들이 모두 화가 났다. 올림픽은 타 방송사에서도 중계하고 있고, KBS는 심지어 채널이 두 개면서 왜 일일연속극을 결방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TV [일꾼의 탄생]	17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고, 언젠가 사연도 신청하고 싶었다. 채택되길 바랐고, 용기를 내어 참여하고자 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시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기도하겠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1TV [가요무대]	17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너무 속상하니,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1TV [일꾼의 탄생]	12	매주 챙겨봤던 프로그램이다. 정말 재미있었고, 인기도 많은 프로그램인데 왜 폐지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 시즌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여기는 파리]	8	여자 복싱 32강 중계 중 김광선 해설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런 선수는 저 같은 인파이터한테 걸리면 제가 때릴 수 있다' 는 식의 발언이었는데, 올림픽 중계에서 나오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폭력적인 발언을 농담처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1TV [6시 내고향]	8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잠도 줄여가며 시청할 정도인데, 올림픽 때문에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7	평택 주민이다. 현재 평택은 물난리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뉴스로 알리지도 않고, 관련해서 특보가 편성되지도 않아 답답하다. 호우로 피해보는 지역들이 많은데,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에서 특보 편성이 적어 불편하다.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조금 더 고려해 주기 바란다.
1TV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6	이날 진행자의 진행이 편파적이고 미숙했다. 예를 들어 A후보가 B후보를 공격했다면, B후보가 공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또한 후보별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점도 보기 불편했다.
1TV [아침마당]	6	송파에 사는 시청자로 해당 방송을 자주 시청하고 있다. 의사들이 패널로 출연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인데, 김지선 씨가 의사들의 말을 자주 끊는다. 시청자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지, 김지선 씨의 말을 듣기 위해 시청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질문이 있더라도 의사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중계석]	5,433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나비부인'이 방송됐다. 기모노를 입은 여배우가 나오는 등, 광복절이 아닌 날에도 보기 불편한 장면이 광복절에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광복절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2TV [미녀와 순정남]	23	드라마 보는 게 즐거웠던 시청자이다. 그런데 올림픽 중계로 드라마를 결방시키니 즐거움이 사라져서 속상하다. 올림픽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지 않길 바란다.
1TV [KBS 뉴스]	21	과천에서 한 달 전부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그뿐 아니라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고, 안양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KBS에서는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보도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관련 집회에 대해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광복절 기획 독립영화관]	21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독재정치를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광복절에 편성한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1TV [가요무대]	10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올림픽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쉽다. 추후에는 결방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다. 특히 해당 방송을 정말 열심히 보는데 결방이 되어 아쉽다. 최대한 결방이 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7	부모님이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신다. 현재 2주째 결방이 되고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결방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전달되길 바란다.
1TV [동행]	7	매주 부모님과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 중이다. 그런데 올림픽 기간 동안 계속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1TV [동네 한 바퀴]	7	인천에 사는 시청자이다. 김영철 씨가 진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청해 왔다. 현재 이만기 씨의 진행도 좋고, 강부자 씨의 내레이션도 너무 좋다. 방송을 시청하면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 동네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칭찬하고 싶어서 의견을 낸다. 감사하다.
2TV [여기는 파리]	6	올림픽 중계 잘 보고 있다. 그런데 왜 배드민턴 경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내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날 배드민턴 경기 중에 중계를 끊고 양궁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었다. 이미 끝난 양궁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위해, 배드민턴 경기를 끝까지 중계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36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슈카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성인물 시청 권리를 논하는 영상을 올렸다. 최근 '딤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범죄로 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인터넷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슈카 씨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1TV [아침마당]	7	김재원 아나운서를 보기 위해 「아침마당」을 시청할 정도로 좋아한다. 최근 김재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지 않아 아쉽다. 속히 돌아와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1TV [추석 기획 전국노래자랑]	7	추석 기획인데 왜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그맨들의 출연이 방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느껴지고, 추석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그맨들이 출연했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재미있지도 않았다.
2TV [미녀와 순정남]	7	80대 시청자이다. 해당 드라마를 첫 회부터 최종회까지, 본방송과 재방송을 모두 시청했다. 동창들이 모이면 다들 이 드라마 이야기만 한다. 시대 흐름도 담겨있고, 전개도 정적으로 흘러 너무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유치한 장면도 전혀 없었다. 제작진과 KBS에게 감사하다.
2TV [이찬원의 선물]	6	이번 추석 기획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다. 이찬원 씨가 참 좋은 가수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뭉클하게 시청했다. 라이브도 너무 잘한다. 1회성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방송이었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2TV 생생정보]	5	이날 방송에 30년 가발 제작 대가가 소개됐다. 본인이 마침 가발을 맞추려던 참이어서 방송 정보가 도움이 됐다.
2TV [2024 프로야구]	5	이날 KBS 중계를 통해 야구 경기를 시청했는데, 캐스터와 해설위원의 중계가 실망스러웠다. 우선 캐스터는 경기에 대한 반응이 늦고 뻔한 소리만 했다. 야구 중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해 보인다. 해설위원은 엘지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다. 공정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4	매번 잘 시청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은 주변에서도 다 재미있게 시청했다고 말했다.
1TV [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 우리 아이 우리 미래]	4	방송 잘 시청했다. 요즘 저출생이 문제이다 보니, 아이 관련 주제로 음악회를 가진 점이 좋다. 본인이 이재성 아나운서를 좋아하는데, 이날 진행자가 이재성 아나운서였던 점도 마음에 들었다.
1TV [KBS 뉴스 9]	4	이날 뉴스 초반에 북한 관련 소식이 보도됐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많은데, 북한 관련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뜬금없게 느껴진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9]	77	집회에 참여했던 시청자이다. 사전 허가를 받은 집회이고, 질서정연했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회로 교통 정체를 빚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안타까웠다. 또한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집회에 참여했던 것인데, 집회의 목적이 상세히 다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2TV [202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17	이날 KBS를 통해 삼성과 LG의 야구 경기를 시청했다. 그런데 편파적인 해설과 전문성 부족한 캐스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특정 팀 출신이라고 해도 해설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중계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는다.
2TV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17	한국시리즈 5차전을 시청했다. KBS에서 중계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중계 내내 해설위원과 캐스터 간의 기싸움이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했다. 사석에서나 나눌 것 같은 개인적인 발언들과 경기와 무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기아 측에 유리한 해설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야구 중계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2TV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14	캐스터가 경기 중계 중 삼성 측 코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캐스터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니 당황스럽다. 실수가 너무 많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11	손녀들과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서도벤드가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자막이 기억과 디글이 '기억'과 '디을'으로 잘못 기재됐다. 한글날에 더구나 어린아이들도 시청하고 있는데 자막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어린 손녀들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동행]	9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날은 꿀을 팔아서 생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마음이 아팠다. 본인이 꿀을 구입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2TV [스캔들]	9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만 기다렸다. 그런데 야구 중계로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하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한국인의 밥상]	7	진행자 최불암 씨가 휴가를 떠나서 몇 주에 걸쳐 다른 분이 진행을 맡고 있으니 어색하고 이상하다. 시청자 입장에선 최불암 씨가 진행을 맡는 게 친숙하고 좋다. 얼른 휴가에서 복귀해서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2TV [스캔들]	7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결방이 되어 아쉽다.
2TV [스캔들]	7	일일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이다.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드라마가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스포츠 중계로 인해 드라마가 결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너무 괴롭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다큐 인사이트]	141	방송을 끝까지 시청했다. 동성혼을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이며,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성혼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고, 선택권이 없었던 쌍둥이 아이들도 안타깝게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TV [스캔들]	8	살인, 폭력 등 소재가 너무 사악하다. 마치 범죄의 교과서같이 느껴진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나쁜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이 보기에다 지나치다. 우리나라 대표 방송국다운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7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한 보도가 너무 많다. 시청자들은 국내 소식이 더 궁금한데, 북한 관련 소식이 계속 보도되니 불편한 마음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나라의 전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 국내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더 다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6	이날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일반인 출연자들의 무대와 초대가수의 무대 모두 재미있었다. 진행자 남희석 씨의 진행 또한 좋았다. 앞으로의 방송도 기대가 된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6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됐다. 편성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또한 수요일 저녁 시간은 1TV의 일일연속극과 편성이 겹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아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9]	6	이날 파킨슨병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배아줄기세포를 써서 파킨슨병 환자의 상태를 개선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의 배우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해당 소식을 접하고 너무 반가웠다.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
1TV [사랑의 가족]	6	평소 즐겨 시청하는 방송이다. 이날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본인은 일 년 내내 사과를 먹는 사람이다. 어차피 사과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날 출연한 부부에게 구매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방송을 제작한 KBS에게 감사하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 중인 시청자이다. 출연자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날은 깻잎김치, 메주, 된장 등이 소개되었는데 본인도 구매하고 싶었다.
1TV [한국인의 밥상]	5	진행자 최불암 씨가 말씀을 구수하게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휴가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니 궁금하다. 최불암 씨가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다.
1TV [KBS 뉴스특보 2024 미국의 선택 1부]	4	미국 대선 개표 현황을 보여주느라 「아침마당」이 결방됐다. 왜 다른 나라의 대선 때문에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은 이후 대선 결과를 뉴스나 기사로 접해도 충분하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특보]	76	광화문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뉴스가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 위주로 보도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모든 뉴스들이 편파적이 된 것 같다. KBS에 실망이 크다. 뉴스를 시청하며 너무 많이 울었다.
1TV [KBS 뉴스특보]	66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는 많이 보여주고,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보여주지 않는다. 공영방송 KBS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입장만 보도하면 실망이 크다. 계엄령이 왜 선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46	방송을 정상화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치 이야기를 뉴스 시간에만 들으면 충분하다. 온종일 뉴스특보를 방송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속히 정규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35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일요일만 기다린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하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34	너무 재미있어서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이다. 지난주는 그렇다고 쳐도 이번 주는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결방이 되어 실망이 크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특보]	33	계엄령 관련 뉴스특보가 너무 지나치게 편성되어 화가 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TV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결방시키니 속이 상한다. 큰 변동 사항도 없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보도하니 지겹고 짜증이 난다.
1TV [결혼하자 땡콩아!]	25	재미있게 시청 중인 드라마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쉽다. 온종일 특보만 편성되고 있다. 모두 관심사가 다른데, 정규 프로그램은 결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TV [결혼하자 땡콩아!]	24	나라가 어수선해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날 뉴스특보 편성으로 일일연속극이 결방됐다.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결방 없이 그대로 편성해 주었으면 한다.
1TV [KBS 뉴스광장]	24	KBS를 알람처럼 켜놓고 아침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KBS 뉴스광장」이 편성도 지연되고, 축소되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때일수록 방송국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소대로 해나가야 한다.
1TV [KBS 뉴스특보]	2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한 뉴스특보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지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야당의 잘못도 분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고 답답하다.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명예훼손,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모욕죄)이 침해된 내용

△ 방송제작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 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 논란, 논거 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 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 피해, 외주제작사 관련 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 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 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 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 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 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 요청, 심층보도 요청, 후속보도 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 제언, 보도 제언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KBS 시청자의견 일일보고서 [1.12]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 ○○○○)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1. 11.(목) 07:00 ~ 22:00
- 상담건수: 1,192건

II. 주요의견 내용

○ 진행자 호평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방송일시 : 1TV (월-금) (16:00-17:00)

진행자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잘 하는 것 같다. 진행자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번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서 보기 좋다.

○ 보도 제언(182명)

- 프로그램명 : 「KBS 뉴스 7」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텀코리아 대표 기소’
- 방송일시 : 2024. 1. 10.(수) 1TV (19:00-19:40)

휴스텀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6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19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546	27	-	-	619	1,19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700	399	6	-	-	87	1,19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425	767	-	1,19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057	1	70	64	1,192

시청자 의견	문 의
【보 도】 ○「사사건건」 - 진행자 호평 ○「KBS 뉴스 7」 - 보도 제언 ○「KBS 뉴스 9」 - 보도 제언 【시사교양】 ○「일꾼의 탄생」 - 시청자 참여 제언 【연예.오락】 ○「옥탑방의 문제아들」 - 방송 제언 【드라마】 ○ 일일연속극「우당탕탕 패밀리」 - 극본 제언 ○ 일일드라마「우아한 제국」 - 극본 제언	【방 송】 ○「KBS 뉴스 7」 - ‘보도 불만’ 168건 ○「6시 내고향」 - ‘한과’ 연락처 문의 70건 ○「2TV 생생정보」 - ‘동태전골’ 연락처 문의 32건 ○「KBS 뉴스광장」 - ‘보도 불만’ 21건 ○「아침마당」 - ‘티벳 퀴즈 참여’ 문의 16건 【기 술】 ○「난시청」문의 1건 【경 영】 ○「홈페이지」문의 27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25건 ○「수신료」문의 7건 ○「전화교환」문의 7건 ○「견학」문의 2건 외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64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 문의, 프로그램 구매 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보 도]	
진행자 호평	<p>○「사사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금) (16:00-17:00) - 진행자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잘 하는 것 같다. 진행자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번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서 보기 좋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도 제언	<p>○「KBS 뉴스 7」‘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텍코리아 대표 기소’(18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10.(수) 1TV (19:00-19:40) - 휴스텍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보도 제언	<p>○「KBS 뉴스 9」(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10.(수) 1TV (21:00-22:00) -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했는데, 다른 뉴스들에 밀려 너무 뒷부분에 다뤄졌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뉴스들이 크게 중요한 사안이거나 이슈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고, 치료 후 퇴원을 하는 만큼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시청자 참여 제언	<p>○「일꾼의 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수) (19:40-20:30) -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이며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시청자들은 참여가 힘들다. 전화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연예.오락]	
방송 제언	<p>○「옥탑방의 문제아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10.(수) 2TV (20:30-21:45) - 방송 초창기부터 시청했는데, 몰랐던 상식을 많이 알게 되어 즐겨 봤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제풀이는 뒷전이고 토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일상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속상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드라마]	
극본 제언	<p>○ 일일연속극「우당탕탕 패밀리」(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10.(수) 1TV (20:30-21:00) - 심정애(최수린 분)가 강선우(이도겸 분)·유은성(남상지 분) 커플을 지나치게 반대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현재 강선우·유은성으로 인해 양쪽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부모가 자식의 일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일연속극임을 감안하여 제작진이 조금 더 가족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극본 제언	<p>○ 일일드라마「우아한 제국」(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1. 10.(수) 2TV (19:50-20:30) - 시청하다가 답답함을 느꼈다. 모범적인 KBS에서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제작하다니 원망스러울 정도다. 극중 젊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대 방송인데 지나치게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8건</p>

| 1. 편성 |

○ 1TV 「가요무대」

- 평소 「가요무대」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토요일인 이날 저녁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처음에는 방송시간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토요일 저녁 8시는 가장 중요한 황금시간인데 재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 다큐멘터리 등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우당탕탕 패밀리」

- 이날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식 중계로 해당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속상했다. 일일연속극은 말 그대로 매일 방송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결방이 된다면 '띄엄띄엄 연속극'이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

-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기분 좋게 씨름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다.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결승 마지막 한 판이 남은 상황에서 편성 관계로 중계를 중단했다. 정규방송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승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규 프로그램의 편성을 조금씩 뒤로 미루더라도 결승전을 끝까지 보여주었어야 한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설날 오전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는데, 대통령 특별대담 재방송이 편성되어 실망스러웠다. 이미 했던 방송인데 황금시간대에 왜 재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방송 기자회견도 아닌 녹화방송의 재방송을 굳이 이 시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UHD 명품관」

-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 오는 18일에 최종회가 방송된다고 적혀 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니 종영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해당 방송의 편성이 「2TV 생생정보」와 겹쳐서, 둘 중 한 프로그램은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청자들이 「6시 내고향」을 시청한 후 「2TV 생생정보」까지 연이어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을 조정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

-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이 불발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했다.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

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큰 사건이고, 10주기를 맞아 해당 참사를 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해서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에 KBS에서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시청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전사한 군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감사하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 충남 지역 거주자이다. '4.3 희생자 추념식'을 시청하고자 했으나, KBS 채널에선 지역 자체방송이 편성되어 타 채널을 통해 시청했다. 똑같이 수신료를 내는데 추념식 같은 중요한 중계를 일부 지역에 편성하지 않는 점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제29회 KBS 119상 시상식」

- 1일에 방송되었던 119상 시상식을 너무 잘 시청했다. 뜻깊은 시상식인 만큼 한 번 더 시청하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정규방송 관계로 기억식이 중간에 끊겼다. 다른 채널도 그런가 싶어 돌려봤는데, 타 방송사들은 기억식을 계속 중계했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중단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 조금 더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길 바란다. <4월 18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KBS를 항상 시청한다. 이날 '제1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너무 뜻깊게 시청했다. 타 방송사에선 편성하지 않았는데, KBS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 크리스마스에는 중계방송이 편성되지 않는 반면, 이날 부처님 오신 날 관련 행사는 중계됐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행사를 중계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독교 방송 채널과 불교 방송 채널이 각기 존재하기에 굳이 KBS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중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특별 생방송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

-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주는 KBS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예전에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으니 아프리카를 많이 도왔으면 한다. 개막식 열리는 장소도 화려하고 예뻐서 좋다. KBS에서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청하고 있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유공자의 아들이 낭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 지난 21일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KBS에서 해당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아 의아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중계했어야 한다. <6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호우특보’

- 집중호우 때문인지 이날 KBS가 특보 체제에 들어간 것 같다. 9시 뉴스가 끝나고도 특보를 편성한 점이 마음에 든다. 보도를 참 잘하는 것 같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우리 집 금송아지」

- 수요일마다 「일꾼의 탄생」을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그 시간에 해당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내용이 일요일마다 방송되는 「TV쇼 진품명품」과 80% 이상 비슷한데, 왜 굳이 따로 편성하는지 모르겠다. 재미도 「일꾼의 탄생」에 비해 떨어진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KBS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편성해주어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7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평택 주민이다. 현재 평택은 물난리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뉴스로 알리지도 않고, 관련해서 특보가 편성되지도 않아 답답하다. 호우로 피해 보는 지역들이 많은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서 특보 편성이 적어 불편하다.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조금 더 고려해 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보령머드축제 개막기념」

- 꼭 시청하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던 방송이다. 그런데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1TV 「2024 파리 올림픽」

- 파리 올림픽 중계 관련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방송3사가 똑같은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유도의 경우 16강까지 올라가는 동안 한 경기도 중계하지 않았다. 재방송을 편성할 시간에 생생한 경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1TV 「수지맞은 우리 스페셜」

- 본방송 시간에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재방송이 편성됐다. 본 방송인 줄 알고 시청했다가 재방송이어서 실망했다. 이 시간에 굳이 재방송을 편성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8월 8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 KBS를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식을 편성·중계해 주어 감사하다. <8월 19일 보고서>

○ 1TV 「광복절 기획 독립영화관」‘기적의 시작’

-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독재 정치를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광복절에 편성한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8월 19일 보고서>

○ 1TV 「한국영화 클래식」

-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고전 영화를 소개하는데, 편성 시간이 너무 늦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자느라 시청하지 못할 것이다. 시청이 가능한 시간으로 편성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1TV 「대하드라마」

-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이다. KBS에 사극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물론 사극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KBS가 아니면 사극을 제작할 만한 방송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극은 재미도 있지만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대하드라마를 꼭 좀 제작해 주기 바란다. <9월 6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한국방송기자클럽」‘인구감소 위기극복 대토론회’

-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본인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점점 인구가 줄고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날 프로그램을 보며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편한 시간에 자주 편성해 주었으면 한다. 타 지역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9월 11일 보고서>

○ 1TV 「2024 추석장사 씨름대회」

- KBS에서 명절마다 씨름 경기를 중계해 주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번 명절에도 연휴 내내 경기를 모두 시청했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한국영화 클래식」‘빙점’81’

- KBS 1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방영해서 본인은 재미있게 시청했으나, 친구들이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여서 방송을 놓친 사람들이 다들 아쉬워한다. 시청자들의 문의가 많으므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3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시청하고 있다.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 에어쇼가 멋있었다. 특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방송에서 매번 좋지 않은 뉴스들만 보여주지 말고, 이런 행사를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10월 2일 보고서>

○ 1TV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콘의 탄생」

- 너무 감명 깊게 시청했다. 본인처럼 창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다시 한 번 시청하고 싶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재방송이 편성되면 좋겠다. <10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2024 미국의 선택 1부」

- 미국 대선 개표 현황을 보여주느라 「아침마당」이 결방됐다. 왜 다른 나라의 대선 때문에 시청자들이 좋

아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은 이후 대선 결과를 뉴스나 기사로 접해도 충분하다. <11월 7일 보고서>

○ 1TV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양코르 한강」

-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해당 방송이 너무 좋았고 유익했다. 작가의 방송을 재미있게 보다가 다 시청하지 못해 다시 보고 싶다. 다시 편성해 주길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우선 「개그 콘서트」를 다시 시청할 수 있게 해준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다만 편성이 늦어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기 어렵다. 요즘은 방학이라 함께 시청 중인데, 잘 웃지 않는 자녀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즐거웠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조금 이른 시간대로 편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매일 오전 시청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채널과 시간대가 옮겨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바뀐 시간대는 가족들을 출근시키고 자녀를 학교 보내는 시간으로, 주부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 시청이 어렵다. 원래대로 10시에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2월 5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아침마다 출근을 준비하며 시청했다. 경제부터 지리, 국제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전해주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방송이 사회와 시청자 간의 일종의 소통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폐지가 되어 소통 창구가 닫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 <2월 6일 보고서>

○ 2TV 「며느리 삼국지」

- KBS 2TV에서 방송되었던 일일드라마 「며느리 삼국지」를 다시 방송해 줬으면 한다. 해장국집 청수옥에 시집온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온 며느리들과 3대가 모여 사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극중 미치코 역을 맡았던 배우 이지은 씨를 추모하기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2월 7일 보고서>

○ 2TV 「TV 유치원」

- 오전 7시는 이른 시간인데, 아이들 프로그램이 편성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 손주가 두 명이 있는데, 오전 8시정도 일어나서 8시 30분까지 밥을 먹는 등 등원 준비를 한다. 7시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며, 설령 깨어있다고 해도 비몽사몽 상태다. 편성을 조금 늦춰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2024 KBS 프리미어 김호중 더 심포니」

-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본인뿐 아니라 주부들이 난리가 났다. 지방에 살아서 직접 방청하진 못했지만, TV로 시청할 수 있어 좋았다.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이런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3월 18일 보고서>

○ 2TV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대한민국 : 태국'

- 이날 KBS에서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중계해 주어 잘 시청했다. 해설도 좋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겨서 너무 기뻐다. 다시 한 번 좋은 경기를 편성해준 KBS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3월 28일 보고서>

○ 2TV 「디어엠」

- KBS 드라마에 젊은층 시청자들의 유입이 너무 중요한데, 화제성 면에서 좋을 「디어엠」의 편성을 요청한다. 특히 2024년 들어 「환상연가」등 주로 사극이나 무거운 주제 위주였기 때문에, 가볍고 산뜻한 느낌의 드라마가 편성되면 좋을 것 같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 시청자이다. 강형욱 씨 논란으로 인해 결방이 된 것 같은데, 애청자로서 많이 아쉽다. 해당 방송을 통해 강아지 다루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다. 앞으로는 꼭 결방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2TV 「영동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8」

-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재방송이라지만, 이런 더운 날씨에 크리스마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팔빙수를 먹어야 할 날씨다. 계절에 맞는 방송을 해주길 바라며, 이 의견이 제작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2장 1절」

-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늘 감동 받으며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1TV의 9시 뉴스와 시간이 겹쳐, 항상 둘 중 무엇을 시청해야 할지 고민이다. 9시 뉴스와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금 변경해 주기 바란다. <6월 24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아버지를 따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개그 콘서트」를 시청한다. 그런데 학생인 자녀들이 시청하기엔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서, 월요일 아침마다 힘들어 한다. 「개그 콘서트」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울면서 일주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로 편성을 변경해 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 시청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왜 재방송 편성을 많이 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타 프로그램들은 2번, 3번 재방송이 편성되는데 비해,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재방송을 검색해 보면 일주일에 1번밖에 편성되지 않는다.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라도 재방송을 조금 더 자주 편성해 주기 바란다. <7월 11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파리」

- 아무리 파리 올림픽 기간이라고 하지만 1TV와 2TV 모두 올림픽 중계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채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29일 보고서>

○ 2TV 「완벽한 가족」

- 올림픽이 끝나고 프로그램들이 정상 방송되어 반갑다. 특히 수목드라마가 새로 시작되어 기대가 크다. 오는 수요일에 첫 회가 방송되는데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8월 15일 보고서>

○ 2TV 「스캔들」

- KBS의 열렬한 팬인데, 일일드라마가 자주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왜 항상 2TV에서 야구 중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이날 「KBS 아침 뉴스타임」이 결방되어 속상했다. 대신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의 재방송이 편성되었는데, 재방송을 편성할 바에는 본방송을 편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

- 해당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해 주어 감사하다. 다만 토요일 하루만 방송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코너도 올해 2월에 종료된 「해 볼만한 아침 M&W」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서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 바란다. <12월 12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도움 되는 내용도 많아 즐겨 청취한다. 다만 일주일에 두 번만 방송되는 점이 아쉽다.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일수록 방송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확대 편성을 해서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R 「내마음의 동요」

- 작년에 했던 방송이 재방송되고 있다. 새로운 동요가 얼마나 많은데, 왜 똑같은 동요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동요들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2R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 창원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아침마다 해당 방송을 청취했는데 수도권 지역만 송출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역에서는 라디오 쿵으로만 들을 수 있어 아쉽다. 전국 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11월 21일 보고서>

○ 3R 「오늘의 신문」

- 갑자기 폐지가 되어 아쉽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월 27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

- 목요일 오후 3시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 이날도 시청하려고 기다렸는데 방송되지 않아 편성이 변경된 줄 알았다. 그런데 종영이 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깝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니 후속 방송을 꼭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초등학생과 중학생 손자를 둔 시청자로서 해당 방송의 부활을 간절히 바란다. 요즘 재방송 편성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전, 골든벨」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도전에 대한 열망을 깨워 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이것이 인생이다」

- 방영 당시 즐겨 시청했던 프로그램이다. 본인이 사연이 많아 해당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데 종영이 되어 너무 아쉽다. 비슷한 콘셉트의 「인간극장」은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인생이다」가 더 개개인의 사연에 집중하는 것 같다.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오랫동안 「생방송 심야토론」을 시청해 왔던 시청자이다. 종영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고 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유익한 토론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시청자들이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수요기획」

- 우연히 재방송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너무 슬펐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꼭 다시 제작되었으면 한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본인의 생명을 살려줘서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이 있다. KBS에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을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TV 「특선 다큐 - 야생의 대평원 세령게티」

- KBS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대전의 시청자이다. 「야생의 대평원 세령게티」를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야생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어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예썰의 전당」

- KBS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예썰의 전당」은 예술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했다. 후속 방송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KBS의 뜻이겠지만, 만약 후속을 제작해 준다면 좋아할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시즌2가 제작되길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TV 「바다 건너 사랑」

-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은데, 반려동물에게 큰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돼 있어 보기 불편하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러브 인 아시아」

- 본인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시청자이다. 해당 프로그램 방영 당시 재미있게 시청했기 때문에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1000회 특집 남북의 창」

-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예전에 서유럽의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 국경선이 있었다. 현재 남북은 분단되어 있으므로 국경선에 치열한 분위기가 있다. 「남북의 창」에서 유럽 국가들의 국경선을 종종 소개한다면, 대치 상황으로만 여겨지는 국경선의 개념이 조금은 이완되지 않을까 싶고, 언젠가 해야 할 통일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퀴즈 대한민국」

- 10년 전 방영 당시 잘 시청했는데 왜 폐지되었는지 모르겠다. 폐지 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 제작진에게 꼭 전달되길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전국이장회의」

- 2019년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으로 후속 방송 제작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시청자 입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KBS가 예전과 같지 않다.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 배철수 씨가 진행했던 「콘서트 7080」과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쯤 생긴다면, 시청자들도 좋아하며 시청할 것 같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서 추억의 노래들을 들려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시청자이다. 재미있는 방송들이 많이 없어져서 속상하다. 늦은 시간에 방송했던 「더 라이브」도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1TV 「러브 인 아시아」

- 외국인 배우자를 둔 가족이 출연해서, 배우자의 나라에 방문해 그의 가족을 만나고 했던 프로그램이다. 요즘은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이 없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7월 8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보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할지 막막하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BBC에서 제작한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KBS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야생여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적이 있다. 아직도 생각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을 주제로 다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영화극장」

- KBS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10대 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들을 시청했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제작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청춘! 신고합니다」

-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종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요즘 군인들이 고생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현장르포 동행」

- 유튜브를 통해 다시금 방송을 시청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다시 방영되었으면 한다. <11월 6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엄마의 밥상' 등 좋은 코너가 많은데, 생각의 전환을 조금 했으면 한다. 현실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걸 희생하는데, TV 프로그램에서도 엄마가 자식에게 주기만 한다. 요즘 들어 소외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코너의 콘셉트를 조금 바꿔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밥상을 대접하는 내용을 담아준다면 더 큰 감동이 있을 것 같다. <1월 2일 보고서>

○ 2TV 「해피선데이-지금 만나러 갑니다」

- 해외 입양아들이 친부모와 만나는 과정을 다뤘던 프로그램이다. 종영 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번째 시즌을 제작해 주었으면 한다. 시즌2 편성을 꼭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

- 해당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왔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지만, 「지구촌 뉴스」를 보는 재미로 살았을 정도다. 종영이 되어 너무 서운하고, 추후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1월 8일 보고서>

○ 2TV 「일요일은 즐거워」'위험한 초대'

- 예능 프로그램의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위험한 초대'가 다시 제작되었으면 한다. 당시 게스트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물벼락을 맞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물벼락 토크쇼 시즌2가 보고 싶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KBS 2TV에서 방영하는 월화드라마로 「전설의 고향」을 편성해도 좋을 것 같다. 젊은 배우들을 섭외해서 대학교 괴담 같은 소재를 다루면 어떨까 싶다. 「전설의 고향」을 다시 제작하는 것에 대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2TV 「통합뉴스룸 ET」

-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했던 프로그램인데 종영되어 아쉽다. 개중에는 후속 보도를 기다렸던 보도도 있었다. 추후 다시 방송되었으면 한다. <2월 15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시즌2」

-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방송을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 다시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2월 26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2」

- KBS 예능 프로그램을 매일 잘 보고 있는 시청자이다. 「청춘불패」가 방영 당시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시즌2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아 아쉽다. 시즌3 제작을 기다리겠다. <3월 6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아침마다 기분 좋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제목도 좋고, 남녀 진행자가 재미있게 진행해주었으며, 전문가 패널들도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었다. 좋은 정보들로 가득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왜 중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즌2를 제작해 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3월 6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으로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를 시청하고 있다. 해당 방송의 출연자가 2014년에 시즌2를 종료하며,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다음 시즌으로 찾아뵙겠다고 인터뷰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시청자로서 시즌3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대처하고, 잘 풀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3월 8일 보고서>

○ 2TV 「혼자서도 잘해요」

- KBS 2TV에서 꼭 좀 제작해 주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프로그램이다. 94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종영되었다.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체험! 삶의 현장」의 방송 재개를 요청한다. 어렸을 때 감동적으로 시청했는데, 어느새 더 이상 방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진정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3월 18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타 방송사가 아닌 KBS에 제보하고 싶은데, 「제보자들」과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 후속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한다. <6월 4일 보고서>

○ 2TV 「터닝메카드W2」

- 인기 애니메이션 「터닝메카드W2」의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닥터 x와의 싸움이 끝난 후 시간이 흘러, 또다시 위기를 맞은 찬과 친구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 부디 이 의견이 채택되길 바란다. <6월 11일 보고서>

○ 1R 「싱싱 농수산물」

- 현재 1라디오에 농어촌 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아침 1라디오」가 편성되어 있지만, 농어촌 소식만 전담으로 다루진 않는다. 농어촌 소식을 전담으로 다루었던 「싱싱 농수산물」이 다시 제작되길 바라며, 3라디오 채널에서 새벽 시간대에 편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30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 초대석」

- 해당 코너를 청취하다가 제주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됐다. 그러나 요즘은 녹음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기록으로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KBS에서도 제주어 보존을 위한 내

용으로 방송을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8월 21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오전에 잠이 덜 깬 채로 출근을 할 때, 김태훈 씨가 통통 튀는 매력으로 진행해 주어 즐겁게 청취했다.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게 청취했던 방송인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김태훈 씨가 다시 복귀해서 방송을 이어가 주었으면 한다. <1월 3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우당탕탕 패밀리」

- 심정애(최수린 분)가 강성우(이도겸 분)·유은성(남상지 분) 커플을 지나치게 반대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현재 강성우·유은성으로 인해 양쪽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부모가 자식의 일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일연속극임을 감안하여 제작진이 조금 더 가족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1월 12일 보고서>
- 올해 칠순이 된 시청자이다. 해당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던 손주들이 “저 여자(유은성·남상지 분) 아빠랑 저 남자(강성우·이도겸 분) 엄마가 부부였어?”라고 묻는데 낯 뜨거웠다. 우리나라 1,000,000세대 중 1세대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 방송하는 점이 불편하다. <1월 24일 보고서>
- 유은성(남상지 분)이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시청자들은 온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일연속극을 시청하는데, 매번 싸우고 사람이 다치고 죽는 장면이 너무 많이 그려져 답답하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싸우는 장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중환자실에선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행동이 가능하지 않다. <3월 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수지맞은 우리」

-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인데 특정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 박복선(서권순 분) 역할이 “주여~ 주여~”라는 대사를 자주 한다. 재미있게 시청 중인데 해당 대사로 인해 거부감이 든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대사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참고해 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주인공 진수지(함은정 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청 중이다. 그런데 극이 악한 행동을 일삼는 진나영(강별 분)의 뜻대로 흘러가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동생이 언니를 너무 괴롭히니,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는데 민망하다. 진수지가 속히 친엄마를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며, 악역의 거짓말이 탄로 나는 전개를 원한다. <6월 13일 보고서>
- 의붓어머니와 그 딸인 진나영(강별 분)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지른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악역을 용서하고 끝낸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의붓어머니와 진나영을 좋게 용서하고 끝내지 않았으면 한다. 악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7월 18일 보고서>
- 아내가 친아들 찾는 것을 남편이 막는 등, 부부 사이에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어른이 봐도 불편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는 젊은 사람들이 시청했을 때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 <8월 21일 보고서>

- 진나영(강별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한현성(신정윤 분)에게 접근해 임신까지 하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는 점도 납득이 안 된다. 속히 권선징악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9월 25일 보고서>

○ 2TV 일일연속극「결혼하자 땡콩아!」

- 정년퇴직 후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드라마라면 역사를 다루거나, 현재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등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는 매 회 등장인물들이 싸움만 할 뿐, 시청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도 없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시청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일일연속극을 시청한다. 그런데 양미경 씨가 맡은 강명자 역할이 매일 울어서 보기 불편하다. 등장인물이 매일같이 눈물바람이니 편안하게 시청할 수가 없다. 저렇게 매일 우는 여자는 없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징징거리지 않고도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월 7일 보고서>
-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재수 없어”, “미쳤어”, 그리고 남편에게 “기어들어 온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이 듣기 불편하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 <11월 11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효심이네 각자도생」

-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 드라마로, 본인 가족도 열심히 시청 중이다. 다만 이선순(윤미라 분) 캐릭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요즘 시대에 저런 엄마와 저런 딸은 있을 수가 없다. 스토리를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캐릭터 같아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인물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피도 눈물도 없이」

- 이날 첫 방송된 「피도 눈물도 없이」를 시청했다. 전 일일드라마들처럼 볼륨 소재라 보기 안 좋았다. 내용도 전작들과 너무 비슷하다. <1월 24일 보고서>
- 동생이 언니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설정이 너무 이상하다. 아이들도 시청하는 시간인데, 이런 이상한 설정에 민망했다. 친자매끼리 복수하는 전개도 지나치게 잔인해서 소름이 돋았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세대가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이런 잔인한 작품들로 인해 세상이 더욱 험악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2월 1일 보고서>
- 예전에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의 드라마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그런데 이제는 일일드라마가 모두 복수극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각박한데, 해당 드라마에서 매번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주니 불편하다. 부디 가족들이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 주기를 부탁한다. <3월 22일 보고서>
- 배도은(하연주 분)이 이혜원(이소연 분)의 아들을 납치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어떻게 언니의 아들을 납

치해서 본인 아들인 척 행세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미녀와 순정남」**

- 죽은 줄 알았던 여주인공이 살아난 뒤 기억상실에 걸린다는 설정이 너무 이상하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주말드라마에서 이렇게 막장으로 전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포털 사이트 오픈톡에도 비판 글이 많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스캔들」**

- KBS를 애청하는 시청자이며, 특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방영되는 KBS 프로그램들을 즐겨 본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된 일일드라마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기에 민망하다. 차라리 아주 늦은 시간에 방송되는 드라마라면 이해하겠는데,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시청하는 시간인데 지나치게 잔인하다. <6월 20일 보고서>
- 문정인(한채영 분) 캐릭터가 악랄하다. 아무리 드라마 제작사 대표라지만 방송작가들에게 하는 갑질이 현실성 없게 느껴진다. 특히 문정인이 백설아(한보름 분)에게 극본 표절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다. 가족끼리 함께 보기 편안한 드라마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연말 결선 전국노래자랑」**

- 남녀노소 막론하고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자는 젊은 층 시청자만을 고려해서 섭외한 것 같다. 본인은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층 시청자로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시청하는데, 젊은 여성이 진행하니 재미가 떨어진다고들 한다. 송해 선생님처럼 무게 있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뉴스in뉴스’**

- 이날 부동산 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해 2024년 부동산 전망을 분석해 줬다. 말을 잘하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1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시민들 구조 나섰지만...연쇄추돌로 5명 사상’**

-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를 보도한 기자가 헬멧을 착용한 점이 보기 좋았다.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 나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몇 차례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보도할 때는 이날처럼 안전장비를 갖추주길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발길따라 고향 기행 충북 영동’**

- 이날 리포터가 충청북도 영동을 방문한 후 충청남도 영동으로 잘못 말했다. 본인이 영동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행자가 바로 정정했지만 듣기 불편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날로 빛나고 늘 새롭다! 베트남’

- 해당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시청자로, 이날 베트남 편을 시청했다. 보통은 출연자가 현지어에 능숙해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되고, 시청자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낀다. 그런데 이번 출연자는 현지어를 못했고, 현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그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라 아쉬웠다. 가급적이면 현지어가 가능한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경기도 가평에서 동네 사람들과 마을회관에 모여 늘 함께 시청한다. 정말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간혹 외국인이 출연할 때가 있다.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역사와 문화를 아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목요특강’

- 목요일마다 교수님들이 특강을 진행하는데, 진행자들이 불필요한 멘트를 자주 해서 집중을 저해한다.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 강연이고, 시청자 입장에서선 중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고 싶다. 강의 중간에 흐름을 끊으며 불필요한 멘트나 질문을 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이날 방송에 조영남 씨가 출연했다. 조영남 씨는 대작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열린음악회」는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KBS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만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은 섭외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김홍성·가애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지 않아 깜짝 놀랐고, 지난주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는 걸 알게 됐다. 두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진행을 맡아왔기에 정이 들었고,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서운하다. 아쉬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추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국악 한마당」

- 이날 방송에 개그맨 박성호 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국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설 명절인데 전통 국악인들로만 섭외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특집 사사건건」

- 전남에 사는 시청자이다. 지금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석 달 후로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 사이 병세가 악화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다.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잇속만 챙기는 모습으로 보여 화가 난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뉴스in뉴스’

- KDI 연구위원이 출연해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발언 중 국민연금의 좋지 않은 상황을 암환자에 비유했다. 본인은 암환자이다. 물론 우울한 상황이지만 우울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 방송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암환자에 비유해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 방송에서 경제 상황을 암환자와 비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3월 8일 보고서>

○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이날 방송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출연했다. 나이가 들면 항상 건강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느 과로 가야할 지 알지 못해 난감한데, 이날 방송을 통해 노년내과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희원 교수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어 유익했고, 방송 내용에 공감이 됐다. 감사하다. <3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 '화요초대석'에 세계 유일의 오페라 가수 합창단이 출연했는데 시청 내내 가슴이 뛰었다. 굉장히 멋있었고, 내용도 너무 훌륭해서 출연진에게 감사하다. 5월에 정기연주회가 있다고 하는데 꼭 참석하겠다. <3월 27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내 고향! 봄날의 밥상'

- 추억이 담긴 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출연자가 "메뚜기가 별미"라고 발언했다. 본인도 농촌 출신이라 잘 알고 있는데, 메뚜기는 눈에 벼이삭이 많을 무렵인 가을에 나오는 곤충이다. 봄에 나오는 곤충이 아니기에 의아했다. <4월 1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73세 시청자다. 송해 선생님이 진행할 때는 매주 일요일마다 기대하며 시청했다. 이후 한동안 시청하지 않다가, 이날 오랜만에 시청했다. 남희석 씨가 안정적으로 진행했고, 특히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또 진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음인데, 남희석 씨는 발음도 좋다. 칭찬하고 싶다. <4월 8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첫 방송부터 시청해 왔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5년 이상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 해마다 출연자들을 교체한다면 신선하고 좋은 이야깃거리가 나올 것 같다. 본인뿐 아니라 친구들도 지루하다고 한다. 새로운 출연자들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창원의 60대 시청자이다. 많은 방송사가 있지만 본인은 오직 KBS만 시청한다.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도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뉴스를 시청할 때마다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의견이 꼭 전달되길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동물의 왕국」의 애청자이다. 내레이션하시는 분이 음성이 좋고 해설을 잘한다. 본인은 복지 시설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방송 잘 시청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내레이터의 음성을 오래오래 듣고 싶다. <5월 7일 보고서>

○ 1TV 「방과 후 초능력」

-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최태성 역사 강사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분은 정치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근대사를 왜곡할 때가 많다. 편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섭외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인천계양산국악제 특집'

- 평소 국악을 좋아한다. 특히 이날 '악단광칠'의 무대를 잘 보았다. 출연자가 공연을 잘하니 방송이 더욱 재미있다. 요즘 「국악 한마당」이 방송을 아주 잘하고 있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춘천총국]」

-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잘 시청해 왔다. 이유는 진행자가 '지명수배'라는 제목에 맞게 진행을 잘해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집중하며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그런데 이날부터 진행자가 교체되어서 못했다. 추후 원래 진행자가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허우령의 생활뉴스'

- 부산의 50대 남성 시청자이다. 이날 눈이 불편하신 분이 앵커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본인에게는 최고의 장면이었다. 어려움 없이 진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싶었고, 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KBS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최고의 장면을 보여준 것 같다. 뉴스에서 해당 앵커를 더 많이 볼 수 있길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TV 「2024 파리 올림픽」'여자 마라톤'

- 이번 올림픽에서 마라톤 중계를 맡은 박노원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싶다. 사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한 흔적이 보이는 기대 이상의 중계였다. 본인은 마라톤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박노원 아나운서가 놀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앞으로도 한국 마라톤 발전에 KBS의 노력을 부탁한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200회 특집 이슈 픽 쌤과 함께」'인구 쇼크 대한민국, 반전 전략은?'

- 이광형 KAIST 총장이 인구 부족 현상에 대한 전략으로 다양한 국가의 인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인 결혼 개념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책임감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민자를 받아들였다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나라가 많다.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좋은 점만 다뤄 우려된다. <9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바다에서 보석 캐는 남자'

- 이날 출연자가 젊은 분이였다. 젊은 분이 버려진 유리를 주워 공예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방송을 의미 있게 보았고, 시청하며 계속 박수를 쳤다.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9월 11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진행자 최불암 씨가 말씀을 구수하게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휴가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니 궁금하다. 최불암 씨가 빠르게 복귀하면 좋겠다. <11월 25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

-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지인에게도 보라고 추천했다. 특히 진행을 맡은 이효리 씨가 천의 얼굴을 지닌 듯, 항상 다른 모습으로 방송을 잘 이끌어간다. 내용도 좋고 진행자도 방송 경력이 많아 재미있게 잘 시청하고 있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박명수 씨가 출연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장님과 직원 간의 갑을관계를 폭로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기획 의도를 가졌는데, 박명수 씨는 프리랜서 진행자로 라디오 방송 스태프들과 어떻게 갑을관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명수 씨가 제작진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예의 없는 모습도 보기 안 좋으니 섭외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조영남 편」

- 이날 조영남 씨가 출연했다. 대작 논란이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논란이 많은 사람이다. 각종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섭외를 자제했으면 한다. 가족들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인데 논란 많은 인물의 출연은 보기 불편하다. <2월 19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남자 진행자가 인물이 출중하지만, 의상을 너무 자유롭게 입는 것 같다. 함께 출연하는 의사들은 다들 정장을 갖춰 입었는데, 정작 진행자만 자유로운 복장이라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기분이다. 진행자는 너무 좋은데 복장만 조금 신경써 준다면 시청자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느낄 것 같다. ‘캐주얼 프라이데이’처럼 요일을 하루 정해 자유 복장을 입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딘딘 씨가 너무 폭력적이다. 해당 방송이 건전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시청자로서 보기 불편하다. 이날도 딘딘 씨가 손에 모래를 쥐고 멤버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따라했다가 눈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난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출연자는 하차시켰으면 한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KBS 뉴스 6」 ‘경제합시다’

- ‘경제합시다’ 코너에서 주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코너를 진행하는 기자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의상도 정장을 갖춰 입지 않는다. 이날도 일상복 같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보기 안 좋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코너인 만큼, 복장과 말투도 더 전문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4월 5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 레시피 진심 味쳤다! 어남선생 양념게장’

- 류수영 씨가 경찰복을 착용한 채 가짜 총을 들고 등장했다. 요리 프로그램인데 너무 과한 설정인 것 같다. 요리할 때 경찰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지나친 설정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대가의 일급정보 - 대를 잇는 기술, 47년 칼 제작 대가’

- 이날 ‘대가의 일급정보’ 코너에 「인간극장」에도 출연했던 출연자가 나와서 반갑게 시청했다. 「인간극장」에 출연했을 때에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시청했는데, 그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였다. 자신만의 길

이 확고한 분인 것 같다. 가슴 찡하게 시청했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데프콘 어때요’

- 개그맨 신윤승 씨가 하는 해당 코너가 속 시원하고 재미있다. 신윤승 씨는 시청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 같다. 본방송을 놓치면 재방송으로라도 시청한다. <6월 4일 보고서>

○ 2TV 「경제콘서트」‘더 힌트’

- 이날 IBK 투자증권 부장이 SM 주가 하락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언급했다.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데, 공영방송에 출연해 언급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6월 7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패널들 중에 오랜 기간 교체 없이 출연하는 교수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자문에 응할 때 항상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 정보 전달을 위해 새로운 교수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6월 27일 보고서>

○ 2TV 「스모킹 건」‘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야 - 당진 일가족 살인’

- 관심 있게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큰 화재 사건을 다뤘는데, 안현모 씨가 무거운 주제와 어울리지 않게 너무 화려한 옷차림을 했다. 이런 사건·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진주 목걸이와 노출 있는 의상은 시청자들의 집중을 저해한다. 마치 파티에 가는 사람 같은 옷차림을 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7월 22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파리」[복싱] 여 60kg 32강’

- 여자 복싱 32강 중계 중 김광선 해설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런 선수는 저 같은 인파이터한테 걸리면 제가 때릴 수 있다’ 는 식의 발언이었는데, 올림픽 중계에서 나오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폭력적인 발언을 농담처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파리」[사격] 결승 남/녀10m 공기권총’

-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사격 종목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청률 때문인 것인지, 굳이 연예인을 해설위원으로 섭외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는다. 가급적이면 연예인은 해설위원으로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파리」

- 양궁 경기를 시청했다.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후 아나운서가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한다. 양궁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중계를 너무 잘해준 덕분에 잘 시청했다. <7월 31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준 씨와 조세호 씨가 새 멤버로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준 씨의 경우 군 복무 중에 공황장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얼굴도 밝지 않고 뭔가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 조세호 씨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렇게 약한 이미지의 출연자보다는 해맑은 느낌의 출연자를 섭외해 주면 좋겠다. <8월 1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장수 프로그램으로 초반에는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셰프들이 많이 출연하고, 점점 '먹방 프로그램'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먹는 프로그램은 다른 채널에도 이미 많다. 현재 출연 중인 정지선 셰프, 박명수 씨는 '사장님'은 아닌 것 같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의 사장님을 섭외해 주었으면 한다. <9월 4일 보고서>

○ 2TV 「동물은 훌륭하다」

- 동물 프로그램인데 출연자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 이기우 씨,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김영희 씨나 성훈 씨가 출연한다면 조금 더 공감이 될 것 같다. 출연자가 너무 많은 점도 어수선하고 집중이 저해된다. <10월 2일 보고서>

○ 2TV 「2024 프로야구-한국시리즈 5차전」'삼성 : KIA - 광주 -'

- 한국시리즈 5차전을 시청했다. KBS에서 중계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중계 내내 해설위원과 캐스터 간의 기싸움이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했다. 사석에서나 나눌 것 같은 개인적인 발언들과 경기와 무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기아 측에 유리한 해설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야구 중계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1R 「전격시사」

- KBS 기자들과 아나운서들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후 편향성 논란이 사라지고 공정해진 반면, 재미가 떨어졌다. 출연자들도 비교적 공정한 인물 위주로 섭외되다 보니 방송이 전반적으로 너무 단조롭다. 정치성향이 확실해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의 패널들도 섭외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이날 1부와 2부의 초대 손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 유익하게 청취했다. 정회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노년을 잘 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 도움이 됐고, 추후 그 분의 책을 구매해 보고자 한다. 김영식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이 음원을 발매했다는데, 곡이 정말 좋았다. 여러모로 유익한 방송이었다. <2월 13일 보고서>

○ 1R 「성기영의 경제쇼」'경제 핫이슈'

- 이날 불필요한 보험 싹 정리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다뤘다. 그런데 출연자가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 대해 단점 위주로 다뤄 아쉬웠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보험은 목적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라 혹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명해 안타깝다. <2월 16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北, 달라진 외교 전술...한반도 외교지형 변화는?'

- '北, 달라진 외교 전술...한반도 외교지형 변화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이날 방송 잘 청취했다. 남북관계는 전 국민이 상당히 관심 있는 문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데, 이와 관련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줬다. 인상 깊게 잘 청취했다. <2월 23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1부'

-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봉영식 연세대 전문연구위원이 출연했다. 봉영식 연구위원은 종편의 소개팅 프로그램에 몇 달 간 출연하며 돌싱 여자 연예인들과 다소 선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본인의 유명세를 쌓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공영방송 시사 프로에 출연할 만큼 전문가답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3월 22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뉴진수 1'

- 이날 패널로 출연한 KBS 기자가 '가르쳐 준다'를 '가르켜 준다'로 발언했다. 일반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넘어갔을 텐데, 공영방송 기자라서 듣기 안 좋았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잘못된 우리말을 사용하면, 일반인들이 그 잘못된 우리말을 따라 할 수 있다. <4월 3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OTT 구독료 인상에 대해 다른 기자가 '저희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점이 듣기 불편하다. 출연자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데, 진행자가 수정해 주지 않은 부분도 실망스럽다. <4월 24일 보고서>

○ 1R 「전격시사」 '본격토론 2'

- 서울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측 인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라는 발언을 했다. 돈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모두 같은 국민이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으로 듣기 불편했다. <6월 20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이 출연해서 주택연금에 대해 다뤘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들어 봤지만, 이분처럼 명확하게 핵심을 다뤄주는 사람은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유익했다. 방송에 또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 <7월 4일 보고서>

○ 1R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뉴스'

- 이날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패널로 출연했는데, 기존 패널보다 잘해서 듣기 좋았다. 말을 조리 있게 잘 하고 코너를 잘 이끌어가서 편안하게 청취했다. 앞으로도 자주 출연했으면 좋겠다. <8월 26일 보고서>

○ 2R 「송진우의 용감한 라디오」

- 춘천이고, 작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온종일 KBS 2라디오를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 방송과 무관하게 딸과 아내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 불편하다. 이 점을 좀 고쳐주기 바란다. <2월 29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은가은 씨가 매끄럽게 진행을 잘한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고 있다. 이런 청취자 의견이 은가은 씨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4월 17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환경미화원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공중화장실의 물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주현미 씨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셨을까 싶다고 말했다. 본인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기분이 상했다. 본인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 발언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 본인은 KBS를 지상파의 중심, 공영방송이라고 알고 있다. KBS는 가급적 모든 방송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명수 씨는 한국어를 이상하게 줄여서 말하는 등, 바른말 사용에 도움 되지 않는 진행을 한다. 재미있는 스타일로 진행하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우리말을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것은 듣기에 좋지 않다. 바른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매일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상호 씨의 진행을 너무 좋아한다. 팝에 대해 너무 잘 알려준다. 해당 방송에 손 편지를 보낼 생각이다. <12월 23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클래식 FM 방송들이 전반적으로 좋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진행자의 경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청취자 사연을 소개할 때, 사연보다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분량이 더 많을 정도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음악 위주의 방송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1월 10일 보고서>

○ 1FM 「윤유선의 가정음악」

-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청취자이다. 윤유선 씨는 마치 드라마 대본을 외우듯 원고를 외워서 읽는 느낌이다. KBS 라디오를 40년간 청취해 왔는데, 윤유선 씨는 오랜 청취자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진행을 하고 있다. 추후 다른 진행자로 교체해 주었으면 한다. <2월 6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살롱 드 피아노」

- 4~50년 가까이 KBS 1FM을 청취하는 80대 청취자이다. 음악을 감상하고 싶는데 부연설명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마치 가요 프로그램을 듣는 기분이다. 이 부분 참고해 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40년 가까이 KBS 클래식 FM을 청취해 온 애청자이다. 진행자 최은규 씨가 진행을 너무 열심히 하고, 선곡도 좋다. 청취자를 존중할 줄 아는 분 같다. 해당 방송을 듣기 전에 마음이 설렌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 12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계희승의 음악 허물기'

- 클래식 FM만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해당 코너를 진행하는 계희승 교수가 새로운 음악을 발굴해서 들려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현재 클래식 채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드문데, 이런 코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7월 18일 보고서>

○ 2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우울증이 왔는데, 영케이 씨가 진행하는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방송을 듣는 동안 힐링이 된다. 영케이 씨가 오래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3월 14일 보고서>

○ 2FM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 진행자 청하 씨가 하차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다. 평소 웃을 일이 없는데, 청하 씨의 진행을 들으며 웃곤 했다. 사연을 읽을 때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고, 진행에 현실감이 있어 공감이 된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진행자인데 하차하는 점이 아쉽다. <10월 2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뮤직쇼」

- 현재 스페셜 DJ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답답하다. 하루빨리 후임 DJ를 섭외해, 진행자를 확정 지어주기 바란다. <10월 22일 보고서>

○ 한민족1 「한민족 16시 뉴스」

- 진행자가 한국의 여권 파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무비자 입국'을 '무이자 입국'으로 읽었다. 청취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정확한 진행을 부탁한다. <7월 26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KBS 뉴스 7」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텍코리아 대표 기소」

- 휴스텍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TV 「더 보다」 「의사가 병원을 떠났다」

- 본인은 개업한 내과 의사이다. 이날 방송에서 일본 의사들은 환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5배에서 6배의 수가를 받으며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명 없이, 일본 의사들은 절대 파업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듯이 다룬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의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 편과 저쪽 편의 입장을 균등하고 공정하게 다뤄주어야 한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이날 진행자들이 4승에 도전하는 4번 임다운 씨에게 발언 시간을 많이 줬다. 출연자가 말하는 동안에도 투표가 진행되기에, 모든 출연자에게 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이날따라 진행자가 임다운 씨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좌충우돌 동물 탐험대 - 황소」

- 빨간색이 좋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꼭 방송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런 시기에 방송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4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서울 도심서 쿼어축제...인근선 '반대' 집회」

- 쿼어축제에 대해서는 길게 보도하고,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던 것에 대해서는 짧게 보도했다. 형평

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본인은 나라에서 쿼어축제를 허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쿼어축제와 반대집회 분량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6월 4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 모아타운의 실태를 추적한다면서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다뤘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 투기를 했다는 식의 내용은 옳지 않다. 방송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위주로 제작되었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가구나 단독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다. 한쪽의 의견만 담은 편파적인 방송이었다. <6월 18일 보고서>

○ 1TV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 이날 진행자의 진행이 편파적이고 미숙했다. 예를 들어 A후보가 B후보를 공격했다면, B후보가 공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또한 후보별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 점도 보기 불편했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후쿠시마 방류 1년' 수산물 소비 다시 회복세'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몇 년 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겨우 1년 지났는데 문제없다는 식의 보도는 경거망동한 것 같다.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조금 더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8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는 많이 보여주고,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보여주지 않는다. 공영방송 KBS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입장만 보도하면 실망이 크다. 계엄령이 왜 선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도해 주기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1TV 「더 보다」'비상계엄 대한민국 흔들다'

- 시청자들에게 비상계엄이 나쁘다고 각인시키는 것 같은 방송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다 마비시키며 대통령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쪽 입장만 방송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12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 노회범 변호사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가 출연해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본인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패널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만 구성되어 방송이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이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고, 그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면 좋겠다.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12월 30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1197회 뮤빗 K-POP 팬투표에서 NCT 태용의 'TAP(탭)'이 후보에서 누락됐다. 3월 6일로 투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표이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후보 등록을 해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2TV 「2023-2024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챔피언결정 2차전 현대건설 : 흥국생명 -수원-'
 - 이날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가 다소 편파적으로 중계했다. 공영방송에서 특정팀에 편향된 중계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4월 2일 보고서>
- 2TV 「2024 프로야구」'-KIA : 한화 -대전-'
 - 이날 캐스터와 해설자 모두 한화에 우호적인 편파 중계를 하여 야구팬으로서 불편함을 느꼈다. 심지어 기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중계를 했고, 그로 인해 경기를 집중해 시청하기 어려웠다.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2TV 「2024 프로야구-플레이오프 4차전」'삼성 : LG - 잠실 -'
 - 이날 KBS를 통해 삼성과 LG의 야구 경기를 시청했다. 그런데 편파적인 해설과 전문성 부족한 캐스터 때문에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특정 팀 출신이라고 해도 해설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중계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21일 보고서>
- 1R 「뉴스레터K」
 - KBS 1라디오의 청취자이다. 현재 「뉴스레터K」를 청취하고 있는데, 패널 섭외 등이 공정하지 않다. 본인이 학창시절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배웠다. 균형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악성민원 실태와 대안은?'
 - 본인도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원인의 요구를 마땅히 들어줘야 한다. 요구를 들어주기 싫다면 공무원을 해선 안 된다.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 민원인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다. 공무원만 옹호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3월 18일 보고서>
- 1R 「전격시사」
 - 유튜브들이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성국 씨의 경우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공정성이 있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6시 내고향」'섬섬옥수'
 - 이날 방송 중 '값진(甲辰) 한 해의 시작!'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그런데 甲은 '갑'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값'으로 표기된 점이 보기 안 좋았다. 제작진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알겠으나,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신년기획 VOTE 2024 1편 - 동아시아의 열점(熱點) 대만(臺灣) 총통 선거 D-6일'
 - 이날 2024년 주요국 선거 일정을 알려주는 자료화면에서 한국 총선이 4월 18일로 표기됐다. 한국 총선은 4월 10일이다. 잘못된 정보이므로 확인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목요특강 - 요양의 모든 것'

- '요양의 모든 것'을 다뤘는데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본인은 가족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에서 소개한 사례는 일부 고급 요양원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요양원들은 방송에서 설명한 것처럼 좋지 않다. 반찬도 볼품없고, 일손이 모자라 환자들의 세안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상과 달리 요양원 전체가 너무 미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예고 자막」

- 1TV 일일연속극 방송 중, 하단의 자막으로 9시 뉴스 예고가 나갔다. 그런데 경남 통영 옥지도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를 다루며 '사망'이 '사명'으로 잘못 표기됐다. 대한민국 대표 채널 KBS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해 실망스럽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출근길 교통 혼잡 상황을 설명하며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다고 했는데, 자막에는 '선릉역~역삼역 집회·행진'이라고 표기됐다. 확실히 알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니 여의도 집회라고 적혀있었다. 시청자 입장에선 단순한 자막 실수인지, 여의도와 '선릉역~역삼역' 모두 집회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광주충국]

- 본인은 '진돗개'로 알고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 '진도개'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공영방송인 만큼 맞춤법에 더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 <6월 24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김유진, 금빛 발차기'

- 이날 역대 하계 올림픽 메달 현황을 알려주던 중, 자막에 1988년 서울 올림픽이 1998년 서울 올림픽으로 잘못 표기됐다.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1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광복절인 이날 태극기 이미지가 잘못 방송됐다. 태극기의 좌우가 반전돼 있어 보기 불편했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도전! 꿈의 무대'를 시청 중이다. 4번 출연자 순서를 보고 있는데, 별명이 '리틀 송가인'인데 자막에 '리틀 손가인'으로 잘못 표기됐다. '손'을 '송'으로 수정해 주기 바란다. <8월 29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시청자의 눈'

- '시청자의 눈' 코너에서 1TV에서 방송되었던「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 우리 아이 우리 미래」가 2TV에서 방송되었던 것으로 표기됐다. 해당 부분 수정해 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

- 손녀들과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서도밴드가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자막이 기억과 디글이 '기억'과 '디을'으로 잘못 기재됐다. 한글날에, 더구나 어린 아이들도 시청하고 있는데 자막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어린 손녀들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이날 가수 김호연 씨가 출연해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네이버 TV와 유튜브 영상의 제목에 모두 '호연 - 아버지의 강(이태호)'이라고 쓰여 있다. 가수 이름을 호연에서 김호연으로 수정해 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2TV 「골든 걸스」

- 이날 방송 중 '방앗간에 둘러서'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방앗간에 둘러서'로 수정되어야 한다.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다.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KBS 뉴스 6」 '경제합시다'

- '경제합시다' 코너의 자막에서 '젊은층'이 '젊은층'으로 오기됐다. 가끔 뉴스 자막에서 오자가 발견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1R 「10시 뉴스」

- 이날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자가 날씨 정보를 전달하던 중 "남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라는 발언을 했다. '남쪽에서 남하한다'는 표현이 이상하며, 잘못된 것 같다. <10월 4일 보고서>

| 7. 시청자권익 |

○ 1TV 「KBS 뉴스 7」 '토스뱅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말 한마디에 1년 넘게 대기발령''

- 이날 보도 중 피해자의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됐다. 본인은 일반 시청자인데, 해당 보도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3월 20일 보고서>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동물극장 단짝」[최종회]

- 해당 프로그램을 애청한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출연자들, 중간중간 나오는 음악까지 시청 내내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이 컸는데, 해당 프로그램으로 위로받았다. 마음 따뜻해지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시골 의사 구자운의 팔팔한 인생'

- 이날 방송 재미있게 시청했다. 88세의 구자운 의사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연세가 많은데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승마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이날 오전에 「KBS 뉴스광장」을 유익하게 시청했다. 특히 황동진 기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전

해준 IT 박람회 CES 소식이 인상적이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소식도 잘 봤다. 감사하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동행」'봉어 할아버지의 작은 꿈'

-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와 사는 한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시청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특히 할머니가 당뇨가 있는데, 본인도 당뇨가 있어 공감이 됐다. 어려운 서민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항상 응원하며 시청하고 있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2024 신년음악회」

-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하는 이날 방송을 굉장히 감명 깊게 시청했다. 시청 내내 본인도 방청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음악을 들으니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KBS만이 할 수 있는 방송이라 느꼈다. 감사하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열린채널」'나의 버스'

- 시청자위원회 1기로 활동했던 시청자이다. 이날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 인권 및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를 다뤘는데, KBS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과 약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다뤄주어 너무 고마웠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KBS를 시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자를 위한 방송을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2024 새희망 새출발'

- 이날 왕기철 명창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대를 꾸몄다. 본인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6회 졸업생이라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시청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거기에다 완벽하게 잘해주어 보기 좋았다. 제작진에게도 감사하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어떤 가족, 고립을 넘다'

- '1인 가구'에 대해 다룬 이날 방송 잘 시청했다. 본인의 친구도 혼자 살고 있는데, 병원에 가니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난감한 경우를 겪었다고 한다. 이날 방송을 보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느꼈다. 내용이 굉장히 유익했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자주 다뤄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생활의 발견 스페셜」

- 해당 방송을 통해 바다도 감상하고, 항상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육아에 대해 공부도 했고, 세계 각지의 아침밥도 구경하는 등 너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만큼은 종영 없이 계속 방송되었으면 한다. <2월 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80대 시청자이다. 이날 뉴스를 시청하던 중,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에 감사함을 느꼈다. 기사 한 꼭지 한 꼭지 대충 넘어가는 것 없이 섬세하게 보도해 주어 집안에만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2월 2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천하제일 풍경구, 겨울왕국 신장웨이우얼 - 중국'

- 토요일마다 굉장히 잘 보고 있다.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재방송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시 여행이 재

개되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날 중국의 설경을 보여주었는데, 본인도 중국에 가본 적이 있지만 여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내레이션 또한 마음에 든다. <2월 6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세쌍둥이 육아를 명받았습니다’

- 이번 편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세 살 아들에, 세쌍둥이까지 4남매를 둔 군인 부부가 출연 중인데 마음이 짠했다. 엄마는 복직을 하고 아빠가 네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지만,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는데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 보기 좋았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전! 기적의 습관 - 라면 섭취 줄이기’

-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몇 십 년째 먹고 있다. 라면에 중독이 되어 도저히 끊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라면 섭취 줄이기를 다뤄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이게 순대 만 원어치?’..서울 전통시장 화제 [잇슈 키워드]”

-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순대를 킬로그램당 4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양도 많고 맛있어 보여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요즘 저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다니 반가운 마음이다. <2월 29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기획 아나운서 노래자랑」

- 아나운서 노래자랑을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KBS 아나운서들이 재능이 많아서 놀랐고, 기획 또한 신선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특집 방송을 많이 기획해 주기 바란다.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3월 4일 보고서>

○ 1TV 「8000회 특집 6시 내고향」‘고향길, 당신과 함께’

- 갓 성인이 된 20세 시청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청하던 「6시 내고향」이 벌써 8,000회가 되었다니 감동적이다. 항상 할머니와 함께 시청했는데 이제는 혼자 보게 되어 시청할 때마다 눈물 나는 방송이기도 하다. 가족 같고 이웃 같은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대장장이 재선 씨의 후계수업’

- 본인의 고향이 남원인데, 이번 주 주인공이 남원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칼이 필요해 구매하려고 한다. 고집스럽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칼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많이 팔아주어야 자금심이 생길 것 같다.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점이 대단한 것 같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다큐 클래식」‘요리 인류 - 낙원의 향기, 스파이스’

- KBS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우연히 「KBS 다큐 클래식」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너무 흥미진진해서 메모해 가며 시청했다. 재미있고 감동이 넘쳤다. KBS가 다큐멘터리의 명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일요일마다 잘 시청하겠다. <3월 1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엄마의 마지막 집’

- 대구에 거주하는 79세 시청자이다. 본인이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어 몇 군데 다녀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한 주거 공간이 마음에 들고 관심이 간다.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 감사하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그놈 목소리’ 들어보니...’

- KBS의 팬이다. 이날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착취 범죄를 다뤘는데, 이런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병들까 걱정된다. 언론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4월 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농촌소멸]② 새로운 농촌 구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지원”

- 경남 창원시에서 KBS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농촌소멸’에 대한 보도가 너무 훌륭해서 시청 내내 감탄했다. 농민들이 느끼는 답답한 농촌의 현실을 잘 다뤘다. 새로운 농촌 추진 전략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당 보도를 감명 깊게 시청했고, 칭찬하고 싶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 이날 KBS 1TV에서 정규 프로그램들을 대거 결방하고 온종일 개표방송을 했는데, 선거 개표방송을 재미있게 본 것은 처음이다. 본사 옥상까지 연결해서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연출했고, 진행자들의 진행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선거 개표방송 박진감 넘치게 잘 시청했고, 다음 선거 개표방송도 기대하겠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다큐 온」‘산골의 현자’

- 강원도 오지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크가 방송됐는데, 시청하며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남아있다. 이날 방송을 제작한 제작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많이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60대 시청자로, KBS 뉴스를 시청하며 자라온 세대이다. 요즘 KBS 뉴스는 시청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다. 감사하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다큐 온」‘거리의 슈바이처, 거기 그대가 있다’

- KBS의 다크 프로그램들을 잘 챙겨보고 있다. 이날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는 의사들에 대한 다크를 시청했는데, 이 방송을 만든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다크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제4부’

-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감동을 느꼈다. 국민들의 관심사를 방송으로 제작해서 공론화하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방송처럼, 추후 중요한 문제들도 이렇게 다뤄주었으면 한다. 뜻깊고 유익하게 시청했다. <4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외식·배달 대신 ‘집밥’ 해 먹어요”...밀키트·창고형 매장 소비 ↑’

- 물가가 오르며 외식이 어려워져서 밀키트 판매량이 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본인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도를 보면서 당장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 <4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고? [뉴스in뉴스]』

- 이날 12시 뉴스 잘 시청했다. 고갈되는 국민연금 체계를 제대로 잘 다뤄주려고 노력한 보도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진행을 선보여준 앵커에게도 감사하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바다 건너 사랑 2024」[첫 회]

- 아직도 지구상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 울면서 시청했다. 밥을 굶는 아이들을 보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4월 30일 보고서>

○ 1TV 「제45회 근로자가요제」

- 해마다 '근로자의 날'에 가요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본인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내용이 좋아 시청한다.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신선한 재미가 있다. <5월 2일 보고서>

○ 1TV 「2024 KBS 창작동요대회」

- 본인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요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이런 창작동요대회가 또 마련되었으면 한다. 감명 깊게 봤다. <5월 8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지피지기 백전백승 약물 알레르기』

- 눈에 항생제를 잘못 넣어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 마침 이날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다뤘고, 약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소개됐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혼자 대응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 텐데, 방송에서 좋은 제도를 소개해 주어 도움이 됐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팔도밥상」

-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카메라 기종이 궁금할 정도로 화면을 잘 잡아준다. 음식이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된다. 음식뿐 아니라, 간혹 주변의 경관도 보여주는데 그 점도 마음에 든다. <5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다큐 클래식」『다르마 - 치유』

- 현재 마음공부 중이어서 내용이 와 닿았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방송을 통해 복습할 기회를 얻었다. 화가 많은 세상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어 시청자들이 평온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열린채널」『Entry_아쉬움이라는 원동력』

- 대학 야구부의 일정을 다뤘는데 경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굉장히 깊이 있는 방송이었다. 내용이 유익하고 바람직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많이 방영해 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가정의 달 기획 생로병사의 비밀」『1형 당뇨병인 율아의 소망』

- 본인은 2형 당뇨를 앓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1형 당뇨에 대해 다뤘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특히 본인은 1형 당뇨가 소아당뇨라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됐다. 방송을 유익하게 잘 만들어서 당뇨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아주 사적인 여행」[첫 회]

- 제천으로 떠난 이날 방송 잘 시청했다. 해외여행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모처럼 국내여행이 다뤄져 시청하는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제천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방송에서 국내여행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공감도 됐다. <5월 2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30」

- KBS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뉴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도전문채널도 있지만, 본인은 KBS 뉴스를 더 신뢰한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다. 괜히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5월 31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치킨 랩소디 - 2부 닭 한마리의 위로'

- '치킨 랩소디'를 너무 잘 봤다. 컴퓨터로 메모까지 남기면서 시청할 정도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KBS가 음식 다큐멘터리를 특히 잘 제작하는 것 같다. 치킨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다. 어떻게 취재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유익했다. <6월 3일 보고서>

○ 1TV 「세상의 모든 다큐」'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들 4부 - 동안의 비밀'

-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동안을 다뤘다. 늙지 않으려고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본인처럼 겁이 많은 사람들은 시술을 할 수가 없다. 자연적으로 늙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 우연히 해당 방송을 보게 됐다. 너무 잘 시청했다. 내용이 좋아서 다음 주에도 챙겨보려고 한다. <6월 5일 보고서>

○ 1TV 「현충일 특선 다큐 장진호 전투」

- 본인은 86세이며 13살에 6.25 전쟁을 겪었다. 이날 현충일 추념식 중계에 이어 장진호 전투 관련 다큐를 편성했는데, 너무 감명 깊게 시청했다. 우리의 KBS가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해당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전쟁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꼈다. 감명 깊은 방송 감사하다. <6월 7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홍보 장사 만만세 - 여름 더위 날리는 빨간 맛 수박'

- 이날 백승일 씨가 전북 고창의 수박을 소개했다. 방송을 시청하며 혼자만 먹지 말고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진행자들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승일 씨가 수박을 가져와서 진행자들에게 나눠줬고, 다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오래 방송되길 바라며, 두 분 진행자도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춘천충국]」

- KBS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관광을 다니기 힘들니,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찰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첫 회]

- '청춘은 또 빛난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는데, 청년들을 위해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좋아보였다. 인삼비누가 소개됐는데,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비누도 구매하려고 한다. <7월 3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우리 아이, 우리 미래”...‘저출생’ KBS가 나선다 [저출생]

- 저출생에 대한 보도 환영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데, KBS에서 앞장서서 저출생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칭찬하고 싶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시사기획 창」‘우리의 험난한 평균 결혼식’

- KBS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저출생을 주제로 한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너무 유익하게 잘 봤다.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형과 누나를 떠올렸을 때 내용이 공감됐다. 본인의 형과 누나도 자식을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았다. 최소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우려가 된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세계 여름영화전 - 말 없는 소녀’

-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메이저 영화와는 다른, 괜찮은 소규모 영화를 방송해줘서 참 좋다. 계속해서 좋은 독립영화를 잘 선별해서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아주 사적인 여행」[최종회]

- 이날 충남 홍성을 다뤘다. 특히 충청도 지역의 위인들을 소개했는데, 너무 실감나게 설명해 주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뉴스에서 매일 같이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보다가, 이런 방송을 보니 너무 좋다. 이날 방송을 칭찬하고 싶다. <7월 16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영주의 오래된 풍경, 맛의 유산을 품다’

- 빼놓지 않고 열심히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한국의 전통 콩인 ‘부석태’가 소개되었는데 신기했다. 우리나라에서 키운 전통 콩이라고 하니 구매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매번 소중한 정보를 다뤄주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청했으면 한다. 해당 방송에서 소개하는 먹거리들로 식사한다면 현대인들이 앓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2024 파리 올림픽 기획 아침마당」‘명불허전 전설의 스포츠 스타’

- 월차를 써서 회사에 안 나가도 되기에 오랜만에 「아침마당」을 시청했다. 이날 파리 올림픽 기간에 맞춰 전설의 스포츠 스타들을 섭외해 주었다. 덕분에 시청 내내 예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출연자 중에는 본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땀던 선수도 있었다. 너무 즐겁게 잘 시청해서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7월 30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

- 본인은 파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인삼이 소개됐는데, 본인이 파주시 인삼을 담당하여 촬영현장에 나가게 됐다. 촬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시나리오도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공영방송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방송을 효율적으로 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좋은 방송을 통해 북한의 실상 등을 알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광복절 특집다큐 청산리:전투의 재구성」

- KBS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광복절을 맞아 특집다큐를 시청했는데, 역시 KBS는 다큐멘터리를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동적으로 잘 시청했다는 의견이 제작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8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엄마를 구해주세요”...물에 잠긴 차량서 생명 구한 미 경찰 [잇슈 SNS]
 - 최근 해외에서 벌어지는 흉악 범죄 관련 소식을 많이 접하던 중, 이날 훈훈한 소식이 보도되어 보기 좋았다. 아이들이 의식 잃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뭉클했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자주 보도하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소식을 많이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 우리 아이 우리 미래」
 - 방송 잘 시청했다. 요즘 저출생이 문제이다 보니, 아이 관련 주제로 음악회를 가진 점이 좋다. 본인이 이재성 아나운서를 좋아하는데, 이날 진행자가 이재성 아나운서였던 점도 마음에 들었다. <9월 6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기획」‘왕산 허위’[대구총국]
 - 이날 방송에서 ‘왕산 허위’의 행적을 취재했는데, 아주 잘 시청했다. 취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수신료의 가치를 느꼈다. 공영방송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하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윤 대통령, ‘다섯 쌍둥이’ 부부에게 축하 편지·선물’
 -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인구 위기에 처해있는데,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 매일 정치싸움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이런 화목한 기사를 보니 즐겁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500억 한방에 속여, 먹다’
 - 건강기능식품의 이면을 아주 상세히 다뤄주었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과장·허위 광고에 대해 알게 됐고, 너무 화가 났다. 먹는 것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이날 방송 도움이 많이 됐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한국-네팔 수교 50년 기념 다큐 엄홍길, 다시 히말라야로」
 -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방송이었다. 본인이 평소 산악 등반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그리고 배창복 아나운서의 내레이션도 듣기 좋았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방송이다. <10월 29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땅에 쓰는 시’
 - 이날 방송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줬다.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특히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만 보기엔 아까운 방송이다.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성탄 특집다큐 바울로부터」
 -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큐멘터리라서 잘 시청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방송이라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KBS에서 너무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가족들과 함께 감명 깊은 시간을 보냈다. <12월 27일 보고서>

○ 2TV 「고려 거란 전쟁」

- 주말에 방영하는 「고려 거란 전쟁」을 굉장히 잘 보고 있다. 이런 전통 사극은 KBS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덕분에 수신료를 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모임에 나가면 해당 드라마가 항상 화제에 오른다. 일본에서는 전통 사극을 365일 방영하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런 좋은 드라마가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월 16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최종회]

- 이날을 마지막으로 방송이 종영됐다. 모르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다. 항상 시청했던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다. <1월 19일 보고서>

○ 2TV 「골든 걸스」[최종회]

-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날을 끝으로 종영되어 아쉽다. 방송은 끝이 났지만 전국투어 콘서트를 한다니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 만큼, 종영과 별개로 방송에서 콘서트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1월 29일 보고서>

○ 2TV 「1박 2일」‘겨울 네 컷 여행’

- 본방송을 시청한 후 재방송까지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이날 멤버들이 덕유산을 찾았는데, 너무 멋진 경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본인은 덕유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멤버들과 제작진 모두 수고가 많고, 항상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다. <1월 30일 보고서>

○ 2TV 「해 불만한 아침 M&W」

- 이날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내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오전에 출근 준비로 바쁠 때도 꼭 시청했던 프로그램이다. 진행자들 또한 너무 좋아했기에 더욱 당혹스럽고, 종영이 너무 아쉽다. <2월 2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

- 꾸준히 산을 다니는 60대 시청자이다. 퇴직 후 가게를 오픈하며 등산을 못하고 있지만, 「영상앨범 산」만큼은 계속 시청하며 활력을 얻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산을 타는 멤버들과 해당 방송에 출연해 보고 싶다. <2월 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이날 방송을 시청하니 기존에 있던 코너들에, 새로운 코너가 추가된 것 같았다. 시종일관 웃으며 재미있게 시청했다. 마치 한 편의 명랑만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최근에 자극적인 방송이 많다보니 「개그 콘서트」를 순한 맛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의치 말고 지금처럼 시청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고려 거란 전쟁」[최종회]

- KBS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최종회를 시청했는데, 정말 잘 만든 방송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운이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방송을 통해 전달한 점이 감사하다. 대하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은 KBS밖에 없다. 추후에도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줄 것을 기대한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미녀와 순정남」

-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 모두 마음에 들어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전개가 진부하지 않고 획기적이라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부분 없이 정서적으로도 좋다. 계속해서 재미있고 건전한 내용으로 방송해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방안 소년단' 게임을 잘 시청했다. 실내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게임에서 진 멤버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해주어 보기 좋았다. 웬만하면 게임에서 지더라도 식사는 제공되었으면 한다. 이날따라 더욱 재미있는 방송에 감사드린다. <4월 30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어린이날 기획'

- 어린이날 특집으로 진행된 이날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어린이들이 많이 웃는 모습을 보니 시청자로서 기분이 좋았다. 어린이들이 방청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방송을 기획해주어 감사하다. <5월 7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손주들이 TV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익히는데, 특히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재중 씨가 출연해 오이소박이를 담은 장면이 감동적이었고,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서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장민호 씨 분량도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6월 24일 보고서>

○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 유익한 경제 프로그램이다. 이날 시청률도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정보가 많아서 몇 번을 다시 봐도 괜찮은 방송인 것 같다. 특히 이찬원 씨가 출연해서 더욱 재미있게 보고 있다. <6월 27일 보고서>

○ 2TV 「인간극장 스페셜」'달콤살벌 아영이가 돌아왔다'

- 감동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아영 씨를 보며 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 타서 여행 다니며 편하게 사는데, 아영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고 변함 없이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간극장」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했으면 한다. <7월 4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런 법이 어딴어?'

- 이날 변호사들이 출연해서 법률에 대해 다뤄줬는데, 도움 되는 내용이라 자세히 시청했다. 본인이 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움받아 보고 싶다. <7월 1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스페셜」'박경리 토지 완간 30주년 특집'

-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방청객들도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하다. KBS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 <9월 2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밥심으로 산다! 속 편안~ 영양 가득 가루쌀 100% 활용법'

- 밀가루 속의 글루텐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날 밀가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가루쌀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쌀 소비량도 늘어나고, 밀가루 수입도 줄일 수 있다니 너무 유익하다. 다시 한번 시

청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9월 10일 보고서>

○ 2TV 「KBS대기획 <따따라 JYP 박진영>」

- KBS 방송을 정말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추석을 맞아 어떤 방송을 시청할까 고민하다가 해당 방송을 보게 됐다. TV에서 박진영 씨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KBS프리미어<이찬원의 선물>」

- 이번 추석 기획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다. 이찬원 씨가 참 좋은 가수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뭉클하게 시청했다. 라이브도 너무 잘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방송이었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미녀와 순정남」[최종회]

- 80대 시청자이다. 해당 드라마를 첫 회부터 최종회까지, 본방송과 재방송을 모두 시청했다. 동창들이 모이면 다들 이 드라마 이야기만 한다. 시대 흐름도 담겨있고, 전개도 정적으로 흘러 너무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유치한 장면도 전혀 없었다. 제작진과 KBS에게 감사하다. <9월 24일 보고서>

○ 2TV 「개소리」[첫 회]

- 이날 방송을 시청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연출과 극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특히 배우들이 극 중 본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점이 신선했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9월 27일 보고서>

○ 2TV 「다리미 패밀리」

- 해당 드라마를 시청 중인데, 배우들 연기가 마음에 든다. 드라마에서 장애가 있는 역할이 주인공을 맡는 경우가 드문데, 여주인공이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본인도 장애 6급이라서 공감하며 시청하고 있다. <10월 29일 보고서>

○ 2TV 「나라는 가수 인 스페인」

-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재방송으로 시청하게 됐다. 화사 씨와 소향 씨가 노래를 부르자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데, 본인도 덩달아 좋았다.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유로운 형식이 너무 보기 좋다. 굉장히 감동적이며, 이 프로그램을 너무 사랑하게 됐다. 감사하다. <11월 22일 보고서>

○ 2TV 「1박 2일」'육지도 블루스'

-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런데 육지도 편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해 뜨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육지도 음식이 굉장히 잘 나와서 가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2월 3일 보고서>

○ 2TV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첫 회]

- 첫 방송 잘 시청했다. 재미있게 시청했고, 방송 정보들도 유용했다. 특히 '엄마를 부탁해' 코너와 '주말엔 여기' 코너가 좋았다. <12월 9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알고 먹으면 보약 쌀의 재발견'

- 이날 쌀에 대해 다뤘다.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이나, 쌀의 좋은 점 등을 다뤄주어 눈여겨볼 부분이 많

았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많아 다시보기를 통해 한 번 더 시청할 예정이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세차JANG」[첫 회]

-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는데, 세차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이 새로웠다. 장민호 씨 팬인데 방송에서 다시 보니 너무 반가웠다. [2장 1절]도 매주 시청했다. 장민호, 장성규 씨가 진행을 잘한다. 어제도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12월 18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닥터의 경고’

- 본인이 최근 부정맥 진단을 받았는데, 마침 이날 부정맥을 다뤄 잘 시청했다. 수술을 앞두고 너무 무서웠는데 방송을 유익하게 봤다. 항상 의료 정보가 도움이 되고, 진행자들의 진행 또한 좋다. <12월 31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별책부록」

- KBS 1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이날 해당 방송에서 ‘버핏처럼 투자하고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유익했다. 함께 소개된 책도 구매해서 읽어볼 계획이다. 감사하다. <1월 9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본인이 옥상에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해당 방송에서 식물 재배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 매일 빠짐없이 청취한다. 평소 농작물에 관심이 많아 해당 방송에서 출제되는 퀴즈의 답을 아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퀴즈참여 등 방송과 소통하며 청취하겠다. <1월 18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운전 중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기분이 좋아졌다. KBS가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젊은 청취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농사 관련 정보나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어 잘 듣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뤄주는 점이 유익하다. 진행자 또한 청취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진행을 잘한다. 감사하게 잘 청취했다. <2월 1일 보고서>

○ 1R 「함께하는 세상」

- 장애 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이날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가 나온 방송 잘 들었다. 도움이 됐다. <3월 4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지역 초대석’

- 이날 대전 장대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인공지능 개념 학습서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심 있게 청취했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을 구매하려고 한다. 감사하다. <3월 20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일요일은 책과 함께’

- 87세의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김성신 출판평론가가 출연해 ‘세계문학 필독서 50선’에 대해 소개했는데 내용이 참 좋았다. 이날 소개한 책들을 구매해서 꼭 읽어보고 싶다. 감사하다. <3월 26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체헐리즘’

- ‘체헐리즘’ 코너에 이윤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소개됐다. 방송을 들어보니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본인도 동참하고 싶다. 해당 기업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도 한 벌 구입한다면, 그게 동참이라고 생각한다. 방송 잘 청취했다. <4월 29일 보고서>

○ 1R 「경제세미나」 ‘2000년생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 이날 임홍택 작가의 강연이 참 좋았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주제였는데,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요즘 회사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해당 강연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공감이 많이 됐고, 지인들에게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6월 18일 보고서>

○ 1R 「희망충전 대한민국」

- KBS 1라디오를 청취하던 중, 공부를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듣고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 한 통화에 3,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다. <6월 24일 보고서>

○ 1R 「경제세미나」

- 93세의 청취자이다. 매주 듣는 방송인데, 특히 이날 윤종록 교수의 강연이 좋았다. 우리나라에 절실한 내용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듣기를 한 후 손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려고 한다. <7월 2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너 중간에 들려주는 음악들의 선곡도 좋다. 현시대에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곡들로 선곡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9월 9일 보고서>

○ 1R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 새벽에 방송을 듣는데 시집 한 권을 소개했다. 내용이 너무 좋았다. 방송을 청취한 후 해당 시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월 24일 보고서>

○ 1R 「<지금 이 사람>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의 이야기」

- 평소 즐겨 듣는 방송이다. 임수민 아나운서의 진행도 좋다.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싶고, 또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책도 구매해서 읽어보겠다. <10월 11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

- KBS 라디오를 하루 종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이날 2부 ‘하프타임 뉴스’ 코너에서 희귀병을 앓는 4살 딸을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아빠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후원을 하고 싶다. <11월 25일 보고서>

○ 2R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 KBS 라디오의 애청자이다. 해당 방송도 매일 청취하고 있으며, 진행자가 들려주는 좋은 구절은 따로 메모한다. 이날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아라’라는 구절이 소개됐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 <1월 22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부산에서 KBS 라디오를 애청하고 있다. 본인은 새벽 3시부터 2라디오를 듣는다. 특히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청취해 보라고 추천도 한다. <2월 21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날 재미있게 청취했다. 문자 참여 등 방송과 소통하며 잘 청취하겠다. <3월 28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진행자가 온 에너지를 다해 정열적으로 진행해서 반하게 되었다. 본인은 나이가 많은 청취자인데, 마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들 정도이다. 어떨 때는 열정이 넘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4월 23일 보고서>

○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TV보다는 라디오를 선호하는 청취자이다. 특히 이지연 씨가 진행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좋아한다. 방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과 화제를 다뤄주어 감사하다. <2월 20일 보고서>

○ 3R 「대한민국 인기가요」

-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이날 이승철 씨의 '그대가 나에게'와 변진섭 씨의 '너무 늦었잖아요'가 나왔는데 너무 좋았다. 평소에도 선곡이 좋지만, 이날따라 마음에 와 닿는 곡 위주로 선곡되어 잘 청취했다. 감사하다. <3월 6일 보고서>

○ 3R 「건강 365」'불안장애'

- 평상시 앓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 다뤄주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박증에 대해 다뤘는데, 방송 내용이 좋았다. 도움 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4월 18일 보고서>

○ 3R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최재천의 곤충사회'

- 이날 개미의 생태계를 관찰한 후, 개미를 총체적으로 다뤘는데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저자인 최재천 씨가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인 것 같다. 도서관에서 이날 소개된 책을 주문하려고 한다. <6월 13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건강한 체질이라 80살이 넘도록 건강검진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통해 본인의 몸이 어디가 어떻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방송을 청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다. 음식이 보약이라는 것도 이 방송을 통해 배웠다. 도움이 되는 좋은 방송이다. <11월 22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클래식FM의 애청자이다. 특히 「노래의 날개 위에」의 열혈 청취자이다. 진행자의 진행도 좋고, 선곡도 늘 좋다. 이날 들려준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라는 곡이 참 좋았다. <1월 24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KBS를 응원하는 청취자이다. 오전 시간에 운전하며 1FM을 주로 청취하고, 해당 방송을 통해 아주 귀한 음악을 많이 들었다. 방송에서 소개했던 독일 민요 '노래는 즐겁다'도 인상 깊게 청취했다. <2월 7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홍소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노래의 날개 위에」를 항상 잘 청취하고 있다. 이날 선곡 중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봄노래'가 너무 좋았다. 이런 곡을 '스캇송(scat song)'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들어봤으면 한다. <2월 8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시간만 있으면 클래식 FM을 청취한다. 새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클래식 FM을 청취 중인데, 특히 「명연주 명음반」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좋은 클래식 음악을 기가 막히게 선곡하는 것 같다. 본인이 굳이 좋은 음악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 <2월 26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천안에서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던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곡이 소개됐다. 본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동요인 줄 알았는데, 이날 방송을 통해 다른 나라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몰랐던 상식들,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좋다. 계속 잘 청취하겠다. <4월 1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살롱 드 피아노」

- 클래식FM의 애청자로, 클래식 FM의 모든 제작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본인은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클래식 FM을 청취한다. 특히「KBS 음악실」을 잘 듣고 있으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행복하다. 본인의 지인들도 다들 칭찬한다. <6월 12일 보고서>

○ 1FM 「가정음악」

- 라디오를 청취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항상 「가정음악」을 틀어놓아서 듣게 되었고, 좋은 노래가 참 많이 선곡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해당 방송에 신청곡도 보낼 생각이다. <7월 19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항상 애청하고 사연 참여도 하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늘의 코너 <저녁에 쉼표, 하나>를 들었는데, 소개해 준 책 중에 본인한테 맞는 책들이 많다. 오늘 소개한 '꿈이 산을 넘어오다' 책도 그럴 거 같아서 구매하려고 한다. <10월 18일 보고서>

○ 2FM 「조정식의 FM대행진」

- 아침에 듣기 좋은 방송이다. 주로 쿵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매일 잘 듣고 있다. 진행자 조정식 씨의 진행도 마음에 든다. <2월 29일 보고서>

○ 2FM 「쿨 FM 교통정보」

- 아침마다 청취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는 방송이다. 진행자들의 목소리도 좋고, 정보도 참 유익하다. <5월 31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뮤직쇼」

-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다. 황정민 씨의 진행을 좋아한다. 본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는데, 이날 당첨도 됐다.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7월 24일 보고서>

○ 2FM 「이은지의 가요광장」

- 너무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오픈 스튜디오 자체가 신기하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경우, 그것도 잘 시청하겠다. <10월 28일 보고서>

○ 2FM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취자이다. 평소 라디오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학창 시절부터 「키스 더 라디오」를 즐겨 들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고,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유쾌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부분이 라디오가 주는 매력인 것 같다. <11월 20일 보고서>

○ 한민족1 「경제로 통일로」

- 편성 시간상 자주 청취하지는 못하고, 새벽에 우연히 듣게 되었다. 경제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나와서 궁금해졌다. 선곡이 좋았다. <3월 7일 보고서>

○ 한민족1 「문화 공감」

-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 영화 등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려주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상식들이다. 본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TV 시청보다는 라디오를 주로 청취하는데, 「문화 공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3월 8일 보고서>

○ 한민족1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

- 해당 방송 잘 청취하고 있다. 재방송도, 다시듣기도 없어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말 밤 일정을 잡지 않을 정도이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어떻게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이다. <5월 8일 보고서>

○ 한민족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 이날 방송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언급되었는데, 관심 있는 주제라 유익하게 청취했다. 방송 시간대가 아쉽긴 하지만 잘 듣고 있다. <5월 22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부산에 거주하는 애청자이다. 새벽 3시부터 KBS 라디오를 청취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꼭 듣는다. 지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사님들에게도 이 방송을 들으라고 홍보한다. 계속 유익하게 청취하겠다. <10월 29일 보고서>

| 9. 표현(소재) |

○ 1TV 「KBS 뉴스특보」

- 이날 지진해일 예측정보를 알려주는 자료화면에 독도가 빠져있었다. 반면 일본에선 지진해일 주의보를 보

도하며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했다.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실수에 실망스럽다. <1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속보」

- 퀴즈 푸는 재미로 「우리말 겨루기」를 매주 시청한다. 이날 띄어쓰기 문제의 정답을 공개하는 찰나, 공교롭게도 뉴스속보 자막이 겹쳐져 정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터라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자막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4」

- 본인은 피겨스케이팅의 팬이다. 이번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4' 경기가 실시간 중계가 아닌 딜레이 중계가 되어 실망스러웠다. 그뿐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선수들의 경기를 모두 보여주지 않았고, 높은 순위 6명의 경기만 보여준 점도 아쉽다. <1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북, 새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신형 무기체계 가능성'

- 이날 9시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도하던 중,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들어간 자료화면을 보여줬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넘어지면 골골로 간다! 고관절 골절'

- 경기도 팽택에서 매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전문가가 고관절 강화운동을 알려주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따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처럼 고관절 골절을 주의해야 할 70대 중반 시청자들이 따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주 시청층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절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전남 신안'

- 방송에 건의하고 싶다.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동네의 역사나 경치 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먹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마치 식객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굳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주인의 인생 이야기를 길게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궁금해서 시청하는 게 아니다. 식당을 홍보해 주는 느낌마저 든다. <1월 29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 KBS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방송의 출연자들에게 과한 인심을 쓰는 것 같다. 가령 이날 일꾼들이 화장실 문을 수리해 줬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꾼들이 봉사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자녀도 있고 먹고살 만 한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2월 2일 보고서>

○ 1TV 「반려동물극장」'내 모든 사랑을 다 줄게'

- 웰시코기 8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출연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람도 먹기 어려운 소고기, 오리고기를 개한테 먹이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사람 위주의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 5조 원의 청구서'

-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다뤘고, 잘 시청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다만 감성적인 접근방식이 아쉬웠다. 세상에 안전한 투자란 없다. 모든 투자 상품은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윤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커진다. 인터뷰이들의 몰랐다는 식의 대답도 아쉽다. 언론에서 세상에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2월 5일 보고서>

○ 1TV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없이, 사전 녹화로 대담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기자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지 않고 녹화방송을 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중계 대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8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해당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맛집, 대박집 등을 소개한다. 그런데 방송에 소개된 업체들이 음식 자랑만 하고, 정작 음식을 저장하면 안 되는 플라스틱 용기나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는 일명 '빨간 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제작진을 보지 못했다. 언론사로서 감시의 역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2월 29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수요일마다 '도전! 꿈의 무대'를 시청한다. 1차적으로 노래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눈물과 아픈 사연 등으로 동정표를 너무 많이 받는다. 노래 시작도 전에 사연으로 이미 많은 표를 얻는 출연자들이 있는데, 그럼 다른 출연자들은 그 사연을 당해낼 수가 없다. 노래가 아닌, 사연에 투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3월 7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첫 방송부터 줄곧 시청해 온 오랜 시청자이다. 과거에는 종종 가품이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의뢰인이 자신의 소장품이 2억 정도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감정가는 1만원이 나오는 식이었고, 시청자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재미있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진품만 소개되어 재미가 떨어진다. 예전처럼 진품과 가품을 섞어 색다르게 구성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3월 8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이만기 씨가 방문했던 식당을 찾아가 볼 때가 있다. 방송에선 반찬 가짓수가 많았는데, 막상 실제로 가면 방송과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에서 다뤄졌던 서울과 수도권의 식당을 여러 곳 찾아가 봤는데, 다수의 식당이 방송과 달랐다. 맛집을 소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시청자들이 갔을 때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그대로 소개해 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다큐 클래식」 '생명의 선물, 고기'

- 이날 방송에서 동물을 죽이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줬다. 새끼소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잔인한 장면들에 충격을 받았고,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치게 잔인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가려주었으면 한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제1부'

- 젊은이들이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들도 노인층이 늘어나 젊은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다. 현재의 노인들도 젊은 시절에 세금을 내서 연금을 받는 것이고, 젊은이들도 노인이 되면 결국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내용보단, 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뤄주기 바란다. <4월 15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방송을 중간부터 시청하게 될 경우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참 내용을 시청해야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EBS 「세계테마기행」을 보면 항상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라를 표기해 준다. 현재 방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자막으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고용허가제 20년, 공존의 조건'

-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이뤄냈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다문화가 실패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미화하는 것도 불편하다. <4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

-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다. 우리나라 중심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KBS 1TV에서, 그것도 중요한 오전 시간대에 연예인들이 출연해 사생활을 얘기하는 방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중심채널로서 중요한 시간대에 신사적이고 교양적인 내용을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재난상황 등을 알려주는 스크롤 자막을 조금 더 크고 진하게 표기해 주었으면 한다. 일반적인 가정의 거실을 예로 들면 TV와 소파 사이에 2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할 때 자막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영어 자막은 더욱 안 보인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정보를 얻어야 하니 자막을 크고 진하게 표기해 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어린이날 기획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 - 어른들은 몰라요!'

- 이날 어린이들이 출연해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하고, 그에 맞는 성장 과정이 있다. 노래는 가사와 음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트로트는 어린이들이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예쁜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트로트를 부르니 어른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5월 7일 보고서>

○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이날 배우 김보성 씨가 여성 출연자들과 함께 산에서 불을 피워 바비큐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산에서 흡연만 해도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호주'

- 80대 시청자이다. 나이는 많지만 시력은 정상인데, 왼쪽 상단에 표기된 제목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얀색 바탕에 자막마저 하얀색이니 '걸어서' 까지만 보이고, 그 옆과 밑의 글자는 알아보기 어려워서 어느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빨강색 등 바탕에 묻히지 않을 짙은 색상으로 자막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윤 대통령 "포항 앞바다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

-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가능성만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은 것은, 자원보다 개발비가 더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실효성을 따져서 제대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나는 목수로 살기로 했다'

- 본인은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이날 목공일을 하는 출연자들이 소개됐는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노출하면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따라 할 수 있다. 촬영 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겠고, 자막으로라도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3교시 - 소리를 선물하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 노인성 난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난청이 있는 노인들은 출연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고, 그들의 입모양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난청과 보청기를 다루면서 자막에 인쇄한 것 같다. 귀가 어두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노인들을 위해 항상 자막을 보내주기 바라며, 글자도 크고 뚜렷하게 표기해 주기 바란다. <6월 14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

- 최근 영화 선정기준이 궁금하다. 예전에는 단편영화이기에 가능한 참신함을 갖춘 영화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외된 사람들 혹은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무겁고 느린 전개의 영화들이 주를 이룬다. 같은 분위기의 영화들만 소개하니 지루하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비진도에는 낭만 부부가 산다'

- 이날 출연자 문영일 씨가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해 사람을 태우는 장면이 방송됐다. 당연히 단속해야 할 부분인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내보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장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한다. <7월 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자 되는 돈문돈답'

- 이날 실버타운이 소개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같은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 방송에 소개되면서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는 정보공개가 안 되는 곳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 국회 현장 연결 중, 기자의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이 붙어있었다. 공영방송의 기자가 뉴스에서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불편한 시청자가 있을 수 있으니 보도 시에는 드러나지 않게 해 주기 바란다. <7월 29일 보고서>

○ 1TV 「2024 파리 올림픽」

- KBS 시청자인데 올림픽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다. 올림픽 중계 시 좌측 상단에 메달 획득 순위를 자막으로 표기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었을 텐데, 각국 메달 순위를 표기해 준다면 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8월 2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갱단과의 전쟁, 위기 속 중남미의 해법은?’

- 매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다룬 주제는 우리나라 서민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좋다. 다만 어느 정도는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 먹고살기 바쁜데 이날 주제는 와 닿지 않았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여름방학특집 4부작 우리말 겨루기」

- 96세의 시청자로, 월요일마다 유익하게 보고 있다. 이날은 여름방학 특집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우승상금 천만 원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만 원은 어론도 갖기 어려운 금액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나이에 맞게 상금에 차등을 두었으면 한다. <8월 15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석」‘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푸치니 나비부인 1부’

-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나비부인’이 방송됐다. 기모노를 입은 여배우가 나오는 등, 광복절이 아닌 날에도 보기 불편한 장면이 광복절에 방영되어 당황스러웠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 광복절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만 대변되었고, 내국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유럽의 사례를 들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다루었다. 현재 유럽은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종 범죄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내국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다. 정책은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 한다. <8월 22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

-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북한의 실상을 미화하는 것 같다.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해당 방송을 보면 불편해한다.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좋은 점 위주로 소개한다.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상을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 <9월 2일 보고서>

○ 1TV 「추석 기획 전국노래자랑」‘별의전쟁’

- 추석 기획인데 왜 개그맨들이 출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그맨들의 출연이 방송의 성격과 무관하게 느껴지고, 추석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그맨들이 출연했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재미있지도 않았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3인 3색 여자소리꾼’

- KBS의 애청자이다. 이날 방송은 노래 장르나 출연자들의 복장 등 전반적으로 국악과 거리가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드럼 등 연주하는 악기들도 너무 서구화됐다. 국악은 국악다웠으면 좋겠다. <9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미래 인구포럼」

-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동시통역이 집중을 저해했다. 강연자가 영어로 말하는데, 동시통역이 함께 들

여가니 시청 내내 정신이 없었다.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알아듣기 어려웠다. 자막을 사용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통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KBS 미래인구포럼 특별대담」'폴 크루그먼'

- 폴 크루그먼이 출연해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진행자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한때 유럽도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다가 현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성년자 시절에 온갖 혜택을 받다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를 수용했을 때 부작용도 함께 다뤄야 한다. <10월 2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명불허전'

- 해당 방송을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이날 '스타 DNA! 끼는 못 속여!'라는 주제로 연예인 가족들이 출연했다. 유명인사가 출연해서 끼를 자랑한다면 재미있겠지만, 왜 연예인의 가족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명절에 가족끼리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간 모습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1월 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백년습관 - 혈당 치명타!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

- 24년간 병원을 다니며 당뇨 치료를 받고있는 시청자다. 이날 방송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음식으로 홍삼을 소개했는데, 본인이 다니는 삼성병원에선 홍삼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분류한다. 또 부정맥이 있는 사람에겐 홍삼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더 분명히 다뤄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이웃집 아이들'

- 방송을 끝까지 시청했다. 동성혼을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이며,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성혼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고, 선택권이 없었던 쌍둥이 아이들도 안타깝게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육망의 경제학, 일본 유흥가 '

- 일본 유흥업계 청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그 실태를 보여줬다.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영방송에서 유흥업계 청년 종사자들에 대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들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12월 2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게임에서 이긴 멤버들에게는 감자옹심이를, 진 멤버들에게는 빙수를 야외에서 먹게 하는 장면을 봤다. 그뿐 아니라 제작진이 제설기로 멤버들에게 물까지 뿌렸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연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시청자는 없다. 훈훈한 내용으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평생 요리를 해왔던 사람이라 「신상출시 편스토랑」을 항상 관심 있게 시청한다. 출연자들이 다들 색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잘한다. 다만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점을 고쳐주었으면 한다. 머릿수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심지어 요리 중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기 불편하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이전의 「개그 콘서트」는 1차원적인 개그를 많이 선보여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었다. 반면 요즘은 3차원적인 개그를 선보이며, 개그에 색깔을 입히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전처럼 단순히 웃고 즐기기가 어렵다. 말장난, 언어유희도 좋지만, 이전처럼 액션이 가미되어 자체만으로 웃긴 개그를 더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정보 프로그램인데, 너무 먹는 것 소개에 치중되어 있다. 먹거리와 식당 소개가 60~70%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 아쉽다. '생생정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방송이 전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 위주로 제작되는 것 같다. 서민들은 방송에서 사용되는 비싼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시청하다 보면 약이 오를 때도 있다. 서민 위주의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이날 방송을 시청하며 다소 황당했다. 이천수·심하은 부부가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 관련 상담하는 장면이 길게 나왔는데, 너무 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었다. 계속 성형 이야기가 이어져 결국 채널을 돌렸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 가정사 등은 방송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김범수'

- 몇 년째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이다. 24일 방송분의 방청도 갔었다. 방청을 가면 대기실 토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김동현 씨 분량은 편집이 된 것인지, 김동현 씨가 발언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유령 가수도 아니고 화면에도 거의 잡지 않았다. 김동현 씨 팬으로서 너무 속상했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2월 27일 보고서>

○ 2TV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

- 여타의 프로그램들처럼 식사하지 않고,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으로 여겨져 잘 보고 있다. 다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목적지이다. 초반에는 여행지를 알려주겠지만, 방송을 중반부터 시청한 경우 여행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작게라도 방송 내내 국가명과 도시명 등 여행지 정보를 자막으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

- 이효리 씨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방송에 문신을 한 채 출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술, 담배, 마약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이니까 문신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첫 회]

- 이날 첫 회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제목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다. 차라리 '알뜰한 소비

생활' 등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제목을 지었더라면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다. 제목에서 거리감이 느껴진다. <5월 2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나나랜드'

- '나나랜드'라는 코너가 있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꿈나라 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나이까지 어린 시청자들은 속이 상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제작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해당 프로그램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들의 자발적 자아성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연복 셰프의 가족들을 자주 출연시키며, 그들의 가게를 홍보해 주는 것 같다. 이연복 셰프의 동생은 이연복 씨 가게의 직원이 아니기에 출연시키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방송 한 번 타기도 힘든 업계 종사자들의 눈에는 이연복 셰프의 동생이라는 것만으로 방송에 출연해 실질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6월 26일 보고서>

○ 2TV 「1박 2일 스페셜」

- 이날 문세윤 씨가 냉탕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깜짝 놀라는 냉채 족발'이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똥똥한 출연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자막이 사용되는데, 사람을 돼지고기 취급하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7월 30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김재중 씨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재중 씨가 본가를 소개했는데, 집을 소개하는 장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시청자들은 음식 만드는 것을 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지, 집구경을 하려고 시청하는 것은 아니다. 요리에 더 집중해 주기 바란다. <9월 9일 보고서>

○ 2TV 「아이 러브 스포츠」

-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너무 야구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매년 패하는 국내 야구를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스포츠 종목들을 다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이날 크라잉넛 멤버가 착용한 모자에 'suicidal'이라는 영어단어가 적혀 있었다. 해당 단어는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이라는 뜻이다. 가족이 보는 저녁 시간대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10월 14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카게야마'

- 일본 특집이 방송됐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 있었다. 한 남자가 알몸 차림으로 엮드린 모습이 방송됐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방송 수위가 다르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노출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월 15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재테크 고수 장쌤의 특별 과외’

- 장민호 씨가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지인들에게 시드머니를 주면서 투자를 권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변질되었다고 느꼈다. 방송의 목적과도 다르고, 투자는 위험한 것으로 방송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다. <11월 4일 보고서>

○ 2TV 「더 탄따라」

- 본인이 알기로 ‘탄따라’라는 단어는 가수를 낚잡아 이르는 말이다. 본인은 무명 음악가로 ‘탄따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여러 좋은 단어를 두고, 왜 KBS에서 이런 단어로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제일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방송의 취지는 아빠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뉴진스의 멤버 민지가 김준호의 아이들을 돌보는 내용이 방송됐는데, 방송의 취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은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인기 연예인을 초대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다. <11월 29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집안일을 하며 청취하던 중 퀴즈에 참여했다. 주부들이 바쁜 와중에 퀴즈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젊은 청취자들에게겐 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나이가 많고 집안일이 바쁜 주부들은 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답을 확인하기 어렵다. 간단한 퀴즈의 경우 청취자들이 편하게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 중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1월 25일 보고서>

○ 1R 「세상의 모든 정보」‘1부’

- ‘세상의 모든 지식’에 프로파일러가 출연해서 살인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실생활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상식,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뤄주었으면 한다. <5월 9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매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이날 ‘미국 대선 트럼프 승리’에 대해 다뤘는데, 부정적인 면만 언급해서 듣기 불편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너무 부정적인 쪽만 언급하면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11월 11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KBS 2라디오를 즐겨 듣는다. 그런데 타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사연이 중복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방송에서 아버지가 28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갔다는 사연이 소개됐는데, 타 방송에서 이미 들었던 사연이었다. 사연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품을 타가는 일부 심성 나쁜 사람들이 있다. 제작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연을 체크해 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KBS 2라디오를 청취하는 다수의 청취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었던 가수의 곡을, 다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오래된 가요는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주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는 최신곡을 들려주는 식으로 제작진들이 선곡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4월 29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 대구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는 편이다. 박명수 씨가 너무 오래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 식상하다. 광고가 너무 많고, 방송 내용도 다소 식상하니 개편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7월 17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타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자주 한다. 그런데 주현미 씨는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자주 하지 않아 안타깝다. 해당 방송의 팬들을 위해 보이는 라디오도 종종 진행해 주기 바란다. <10월 31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명절을 보내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길에 기분 좋게 청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으스스한 곡이 선곡되어 귀경길에 깜짝 놀랐다. 이날은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른 때도 아니고 이런 날에 괴기스러운 음악을 선곡한 점이 아쉬웠다. <2월 14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이날 첫 곡으로 '애들아 우리는 어른들을 닮지 말자'를 틀어줬다. 어린이날에 어울리지 않는 선곡이었고, 더욱이 대동강을 찬양하는 내용이라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어린이날에 이런 곡을 선곡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월 7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아침마다 출근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한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간혹 너무 사적인 사연이 소개된다. 예를 들어 사연자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을 전국의 청취자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런 사연이 소개되면 잠시 채널을 돌리게 된다. 방송의 발전을 위해 건의한다. 늘 귀한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6월 25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우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가 녹음된 노래를 들려주었다. 무서운 영화를 보던 중 배경음악으로 듣게 된 것도 아니고, 라디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듣게 되어 너무 무서웠다. 그때 본인이 혼자 차를 운전하던 중이어서 더욱 무서웠다. 이런 곡은 선곡하지 않길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2FM 「2FM」

- CoolFM(2FM)과 HappyFM(2R)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 비슷한 콘셉트의 프로그램들이 동 시간대에 너무 겹친다. 예를 들면 「이현우의 음악앨범」과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와 「이각경의 해피타임」이 비슷한 콘셉트로 동 시간대 방송되고 있다. 클래식FM 등 다른 채널처럼 2FM도 명확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1월 19일 보고서>

○ 1FM 「조정식의 FM대행진」'법을 법을 법을 짹'

- 월요일 코너 '법을 법을 법을 짹'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본

인은 임대인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는 소수의 경우로 임대인은 가해자이고 임차인은 피해자인 것처럼 다뤄져서 듣기 불편했다. <12월 11일 보고서>

| 9. 간접광고 |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를 잡아라! 두뇌 튼튼 - 100세 뇌건강법’

- 타 프로그램은 믿지 않더라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만큼은 신뢰했다. 그러나 이날 홍삼이 다뤄졌는데, 방송 말미에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자막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 홍삼을 홍보하기 위해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아 신뢰가 떨어졌다. 또한 홍삼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며, 질환에 따라 홍삼을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8월 28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KBS 뉴스광장」 ‘잇슈키워드’

- KBS 뉴스를 아침마다 시청한다. 좋은 우리말도 많은데, ‘잇슈키워드’와 같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공영방송에서라도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MZ세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하면 해당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표준어가 아니기에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공영방송은 표준어 사용에 앞장서야 하므로 뉴스에서 ‘MZ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설 특선 푸드인문다큐 삼겹살 랩소디」

- 이날 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만 제목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전을 통해 ‘랩소디’의 사전적 의미는 알게 되었지만, 삼겹살과 랩소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영방송은 언어 순화의 기능도 해야 하고, 표준어를 사용할 의무도 있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 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출연해 좋은 강연을 들려주는데, ‘쌤’이라는 표현은 듣기 불편하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추락한 세상인데, 해당 방송을 시청한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쌤”이라고 부를까 봐 우려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 이날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패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KBS는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한글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패널’이라는 단어보다는 ‘출연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되도록 영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4월 8일 보고서>

○ 1TV 「세계는 지금 스페셜」 ‘엑소더스 차이나 그들은 왜 동남아로 갔나’

- 이날 부제가 ‘엑소더스 차이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많다. ‘중국 탈출’ 등 쉬운 한글을 두고, 왜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쉬운 한글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9월 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죽음의 바당 2부 닷’

- ‘죽음의 바당’이라는 부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방송인데, 왜 굳이 어려운 방언으로 제목을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은 처음에 본인만 모르는 단어인 줄 알았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표준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9월 26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 ‘빙하의 시그널’

- KBS 덕분에 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시청자이다. 목요일 저녁에 「다큐 인사이드」를 시청했는데, 부제가 ‘빙하의 시그널’이었다. 어르신들 중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빙하의 신호’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0월 7일 보고서>

○ 2TV 「KBS 뉴스 6」 ‘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이유는?

- KBS에서 「바른말 고운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순화에 앞장서면서, 이날 보도에서 굳이 ‘배드파더스’라는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무책임한 나쁜 아버지’라고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KBS에서 앞장서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KBS 1TV에서는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자막을 사용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싫어’를 ‘시러’로 표기한다. 이해는 하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타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간혹 그런 자막을 쓰지만, KBS만큼은 한글을 제대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2TV 「싱크로유」

-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영어 제목이라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점점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된다. 아파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영어 이름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공영방송만큼은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11. 장애인/차별

○ 1TV 「중계방송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 기념식에 참석한 외국인들의 추모사 내용이 동시통역 없이 자막으로만 표기됐다.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주최 측이 동시통역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도, KBS에서 동시통역사를 섭외해서 중계할 때 동시통역을 해주었으면 한다. <11월 13일 보고서>

○ 2TV 「경제콘서트」

- 수어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청각 장애인들이 시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화 방송을 부탁한다. <10월 8일 보고서>

| 12. 일기예보 |

○ 1TV 「KBS 뉴스광장」

- 해당 방송을 출근하기 전에 잘 보고 있다. 하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잘 보도해 주어 유익하다. 특히 정희지 기상캐스터를 칭찬하고 싶다. 부드러운 인상이 보기 좋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분하게 진행한다. 말투가 상당히 빠른 기상캐스터도 많은데, 정희지 기상캐스터는 한결같이 차분하게 진행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5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30」'일기예보'

- 날씨가 너무 맞지 않는다. 이날도 예보와 날씨가 맞지 않아 불편했다. <8월 9일 보고서>

| 13. 방송품질 |

○ 1TV 「역사저널 그날」

- 평소 해당 방송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와 출연자들 뒤로 술병 장식이 너무 많이 보인다. 「역사저널 그날」은 KBS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이고, 학생들도 공부를 위해 시청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콘셉트를 잡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전통 술병도 아닌 외국 술병이 대부분이다. 서글픈 기분까지 든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을 시청 중인데 책상 모서리에 흠집이 나있다. KBS인데 왜 저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 흠집 난 부분을 다듬어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세중에 사는 시청자 중 한 사람이다. 김동건 아나운서 뒤로 하얀 커튼이 보이는데, 고정시킨 부분의 좌우 모양이 다르며 심지어 오른쪽 부분은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았다.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인데 무대 세팅을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쁘게 다시 정리해 주기 바란다. <9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꽃피는 인생수업'

- 강연자 뒤로 책꽂이가 설치되어 있고, 원서가 꽂혀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에 꽂힌 책들은 거꾸로 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해당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데 제목 읽기가 불편할 것이다. 책 제목을 읽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꽂아 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해당 방송의 열혈 팬이다. 1TV에서 방송할 때는 세트장이 넓고 공간도 많아 차트 등을 진행자의 앞이 아닌 옆에 뒤서 보기 좋았다. 그러나 2TV로 옮긴 후 세트장이 좁아졌고, 이에 따라 진행자와 패널 간의 간격도 좁아져 보기에 답답하다. 조리할 공간이 없는 핫인지 요리하는 코너도 없어져 서운하다. 다시 공간을 넓히고, 차트 같은 소품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 <3월 7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방송의 시스템을 바꿔 조금 더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 최근 음악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어떤 무대가 라이브인지, 립싱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화면에 립싱크 표시제를 다시 도입해 주기 바란다. <4월 18일 보고서>

| 14. 시청자 참여 |

○ 1TV 「일꾼의 탄생」

-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이며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시청자들은 참여가 힘들다. 전화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장바구니를 잡아라’

- 충남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에서 나눠주는 장바구니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어 안타깝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시청자들은 SNS 하는 방법을 배울 곳도 없다. 장바구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바다 건너 사랑 2024」

- 슬프고 비참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자막으로 후원에 대한 안내도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청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각종 후원단체에선 후원금의 일부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KBS에선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장애인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흥이 많아 단체 관람을 하고 싶다. 여러 음악회가 있지만, 「열린음악회」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단체 관람하고 싶다. 현재 단체 관람을 받지 않는데, 추후 단체 관람도 받아 주었으면 한다. <7월 3일 보고서>

○ 1TV 「저출생 위기대응 특별 생방송」

- 시청자들에게도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생각이 있다. 추후에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생방송 전화 연결 창구 등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7월 15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

- 해당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시청자가 보고 싶은 작품을 신청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지난 2022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김의석 감독의 「오명」이라는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은 작품이 많다. <11월 1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퀴즈가 나오는데, 정답을 알지만 앱 사용이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시청자들을 위해 ARS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8월 5일 보고서>

○ 1R 「KBS 라디오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

- 몸이 불편해서 KBS 라디오를 자주 청취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장애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방송에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신청이 어려운 환경이라 답답하다. <11월 5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평일엔 해당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청취한다.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참여도 자주 하는데, 8월에 당첨된 선물이 아직까지 배송되지 않고 있다. 선물 배송이 지연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11월 20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작년에 해당 방송에서 '고급 명란젓'과 '때장갑과 비누세트' 선물에 당첨된 바 있다. 당첨이 되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해 선물을 받지 못했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취자들을 위해 문자로 당첨을 알리는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자주 듣고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중에 문자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편지를 대필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는데,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각장애인들도 똑같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팩스로도 사연을 많이 받아 주었으면 한다. <11월 29일 보고서>

| 15. 홈페이지 |

○ 1TV 「2024 KBS 창작동요대회」

- KBS 홈페이지 편성표를 봤다. 그런데 「2024 KBS 창작동요대회」의 명칭이 「2024 KBS 창작동요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확인 후 수정 바란다. <4월 30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과거 「개그 콘서트」의 팬으로, TV를 통해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돌아와 주어 감사하다. 그런데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점이 안타깝다. 게시판은 시청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

만이 아닌, 시청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소통을 막겠다는 뜻으로 여겨져 답답하다. <3월 5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그룹 오마이걸 멤버 효정 씨가 고정 MC를 맡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MC&평가단 라인' 목록에 효정 씨는 빠져있다. 반면 이미 하차한 연예인들은 아직까지 '편셰프 라인' 목록에 있다.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6월 27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예전에 해외에서 진행됐던 공연이 다시 보고 싶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 영상만 제공되어 다시 볼 수 없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한다. <11월 14일 보고서>

○ 2TV 「신데렐라 게임」

- KBS 2TV 일일드라마의 애청자이다. 현재 방영 중인 「스캔들」의 후속작인 「신데렐라 게임」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홈페이지도 개설되지 않아 답답하다. 홈페이지를 빨리 개설해 주기 바란다. <11월 27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

- 주말에는 바쁘기 때문에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다시 듣기 서비스로 청취하곤 했는데, 이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너무 불편하다. 건강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청취하고 있다. 다시 듣기 서비스를 꼭 제공해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R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아 궁금하다. 청취자들이 해당 방송을 응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을 부탁한다. <3월 21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음악방송을 즐겨 듣는 청취자이다. 그런데 「당신의 밤과 음악」의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불쾌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청취자가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은 제재해주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클래식 FM의 애청자이며, 주로 콩을 이용한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가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린다. 진행자가 읽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보기 민망하다. 표현의 자유는 이해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표현을 쓰거나 너무 빈번하게 게시글을 올리는 이용자는 제재해 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6. KBS 애플리케이션 |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콩 어플 채팅창에서 비방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청취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특정인이 해당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흐리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는데 보기 불편하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채팅창 이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주었으면 한다. <6월 28일 보고서>

| 17. 시청자서비스 |

○ 기타 「K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공사창립 51주년 기념 중고생 진로 체험 행사」

- 해당 체험에 참여한 중학생 학부모이다. K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자녀가 이 체험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특히 쉽게 접할 수 없는 촬영 공간에서 영상 장비를 다뤄보는 일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준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 <3월 13일 보고서>

| 18. 프로그램 구매 |

○ 1TV 「한국인의 밥상」

-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려드립니다'와 '밥상조리서'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정보들이 유익하다. 예전부터 그 정보들이 책자로 발간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했었다. 책자로 발간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4월 25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장바구니를 잡아라'

-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이다. 어머니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로 나눠주는 장바구니를 너무 받고 싶어 하셔서, 본인이 이벤트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나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다. 당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매라도 하고 싶다. 장바구니를 원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판매해 주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동네들을 다니며 소개하는 식당들을 담은 책자가 발간되면 좋을 것 같다.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지만,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책자를 발간해 주기 바란다. <9월 2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방송에서 소개된 정보들이 굉장히 귀한데, 그 정보들을 정리한 책자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본인처럼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정보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다뤄진 방송정보들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3월 5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 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71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이송, 자료 부존재 등)	계
23	7	12	29	71



2024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2일	양**	이산가족찾기, 진품명품 실제 방송기획자 공개청구	기타	우편으로 회신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2	1월 12일	황**	이재명대표 피습당시 촬영본 원본 공개청구(국민권익위 우편이송)	비공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제출 불가
3	1월 19일	S**	KBS제작 518민주화운동 다큐멘터 리 목록 및 관람가능여부	공개	
4	2월 5일	조**	KBS와 관련 없는 내용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5	2월 14일	b*****	1996년 7월 6일 이문세쇼 녹화본 받는 방법	부분공개	요청영상에 규제자 출연으로 녹화본 판매불가
6	2월 16일	강**	2023년말까지 방송된 과학수사대 제작진 성명과 직함 공개	비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불가
7	2월 19일	양**	이산가족찾기, 진품명품 실제 방송기획자 공개청구	기타	
8	2월 22일	김**	드라마 사랑이꽃피는나무 전회 대본	기타	대본 보관하고 있지 않음. KBS유튜브 통해 일부영상 열람 가능
9	3월 3일	김**	1993년 노래는내친구 출연파일 요청	기타	당시 영상 보관하고 있지 않음 (첫 회나 연말결산 정도 보유)
10	3월 18일	이**	시흥도시공사 사업장 방송 프로그램 노출 관련 원본영상 청구	비공개	일부 청구사항 기타, 일부 청구항목 공개불가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3월 22일	백**	성평등위원회 위원출석현황과 의결결과 등 공개	부분공개	의사록 등은 위원회 공정성 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비공개
12	3월 26일	유**	KBS대구방송국 2023년, 2024년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기부자 명단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13	4월 3일	신**	1972년 5차 수출진흥회의 KBS 보도영상 및 회의내용	기타	자료 없음
14	4월 9일	배**	부산사하구 청운장여관 수상기 등록대장 전체 공개	공개	
15	4월 15일	장**	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 작성, 삭제된 글 정보공개	기타	기 종결사안(게시판에 개인 전화번호 삭제 후 재게시)
16	4월 22일	김**	온라인동영상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신고 연도별 건수	공개	
17	4월 24일	이**	1,2TV 정규방송 보도 모든 뉴스 꼭지 (2015-2020 특정기간)	공개	
18	4월 30일	박**	민원사항 관련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19	5월 2일	이**	1,2TV 정규방송 보도 모든 뉴스 꼭지 (2015-2020 특정기간)/날 짜변경	공개	
20	5월 6일	공**	보도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평 가지표 또는 공정성 평가내부 기준	기타	청구한 평가지표는 없으나 유사 평가자료 안내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5월 8일	신**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5월 6일 진행자 대본 전체	비공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 공개 불가
22	5월 22일	오**	1990년대 정부에서 실시한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중 인도네시아 에 간 전영숙 관련 프로그램 정 보 제공	기타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내용 공개 불가
23	5월 27일	강**	대학교 학술 연구 활용을 위해 <2021 한글날 특집 방탄 때문 에 한글 배웠다 프로그램>의 설 문조사 데이터 제공 요청	기타	자료 보관되어 있지 않음
24	5월 28일	김**	시청자의 알권리와 협찬사의 이익을 위해 드라마 출연진의 착장 정보 회차별로 제공	기타	드라마 출연자의 착장 정보 는 드라마 제작시 작성하거 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25	5월 31일	김**	<한국사전 - 이승만 제1부> (2008.8.30.)의 22초부터 39초에 나오는 이승만 사진 원본 공개	기타	내용부존재
26	6월 7일	조**	구성원의 상벌(賞罰)현황을 모두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 조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해당
27	6월 7일	박**	제5공화국 당시 청와대에서 KBS로 이관한 드라마 목록 제공	공개	
28	6월 8일	k***** **	세키노 타다시가 촬영 유리건판 에 대한 일본인 교수 인터뷰에 대한 정보 공개	공개	
29	6월 11일	s***** *	2008년 2009년 전국체전 육상 종목 영상	기타	2008년과 2009년 전국체전 육상종목 영상 보관하고 있 지 않음
30	6월 12일	k***** **	뮤직뱅크 광고 관련 규정, 담당 부서, 담당자, 절차 공개 청구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6월 20일	유**	서울고법 사건 95라 24946건 에서 KBS가 청구자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느 계좌로 누 구에게 보냈는지 정보 공개	공개	
32	6월 24일	박**	1993, 1999, 2000년에 방영한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의 모든 회차들의 '방송일자'와 '부 제'를 기입	공개	
33	6월 24일	박**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공개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34	6월 30일	나*	6월 30일 nc와 lg전 투수교체 영상 공개	기타	
35	7월 1일	김**	6월 30일 nc와 lg전 투수교체 영상 공개	기타	
36	7월 9일	이**	2015.7.1. ~ 2020.4.30 사이의 오바마 협박사건 보도자료 요청	기타	
37	7월 10일	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진행 상황 공개	기타	
38	7월 10일	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진행 상황 공개	기타	
39	7월 11일	박**	인적자원실-3588 (2024.07.01.) 에서 비공개한 인사위원회 경과 및 진행 상황, 향후일정, 양정 규정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 고 공개해야 함.	비공개	
40	7월 15일	손**	2022-2024년 지역별 수신료 수입 현황	부분공개	2024 수신료 수입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7월 16일	오**	고대영 사장 퇴진 파업 참여 노조원의 퇴직 직원 유무 급여 지급 방법, 고대영 사장 해임이 후 사장 권한대행자 확인	비공개	제9조제1항제4호(수사중 인 사안)의 비공개 대상
42	7월 25일	서**	24.7.8 (PM) 11:40 ~ 24.7.9 (AM) 00:00까지의 KBS Cool FM 오픈스튜디오의 CCTV 열람 요청	비공개	제9조제1항제6호(개인사생 활 침해)의 비공개 대상
43	7월 26일	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리 규정 정보공개 요청	기타	
44	8월 6일	고**	2024년 8월 5일 16시 58분에서 17시 3분 사이 진흥 아파트 교차 로 KBS 재난포털 CCTV	공개	
45	8월 12일	김**	1975년 김순권 다룬 라디오 드라마 복제 요청	기타	
46	8월 16일	김**	8월 15일 방영된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방송 결정자 이름 공개	공개	
47	8월 16일	T*****	8월 15일 방영된 오페라 나비부 인의 방송 결정 기획안 및 결재 자 포함 문서 일체 공개	공개	
48	8월 22일	이**	수신료 납부 및 현황, 신규/말소 처리 과정	공개	
49	8월 27일	조**	1TV 9월 편성표	부분공개	9월 전체 편성표(주별 발행)
50	8월 28일	이**	춘천충국 누가누가잘하나 출연 영상 신청	기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51	9월 4일	조**	1TV 9.7~8 편성표	기타	
52	9월 4일	김**	2024년 KBS 구매 방영 영화 목록 청구	공개	
53	9월 10일	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제공 요청	기타	
54	9월 14일	박**	2023년 히든어스 한반도30억년 OST의 바이올린음악 제목 공개	공개	
55	9월 20일	공**	1991년 5월 31일 아침마당 녹화본 공개	기타	
56	9월 24일	조**	최근 10년간 귀기관의 공적(公 的)인 행위(行爲) 중 반정부(反政 府)행위 사례(事例) 등 16건 공 개	기타	
57	10월 12일	강**	시사파일 강원(2009.9.11) 공개	기타	
58	10월 18일	강**	방심위에 발표한 4월 이달의 좋 은 프로그램상과 상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수상 현황 공 개 요청	기타	
59	10월 22일	박**	인사위원회 정보 공개 요청	공개	
60	10월 22일	김**	모든 영화 구매목록 공개 요청	부분공개	구매 금액(영업비밀)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61	10월 22일	이**	관리번호 34 1244 1243에 대한 최근 6년간 수신료 납부내역 공 개 요청	공개	
62	10월 25일	공**	아침마당 1999. 5. 31일자 공개 요구	기타	
63	10월 25일	조**	최근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한 의 견에 대한 KBS 대책 등 공개	기타	
64	11월 19일	노*	공사 인원 현황, 예산안, 이사회 속기록 등	부분공개	
65	11월 24일	권**	다큐인사이트 배경음악 정보 요청	공개	
66	11월 26일	윤**	방송정보 수정 요청	공개	
67	11월 19일	노*	KBS 인력 현황과 분리징수 대응 전략 공개 요구	부분공개	공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부분만 비공개
68	11월 25일	권**	다큐인사이트 배경음악 정보 요청	공개	제작진 제공 정보 온라인으 로 송부
69	11월 26일	윤**	방송정보 수정 및 무한지대 큐 상세 정보 요청	공개	방송정보 수정 완료
70	12월 8일	송**	6시 내고향 과거 방송 정보 요청	비공개	요청 내용이 막연하여 아카 이브 검색 불가
71	12월 12일	정**	지역 라디오텍스트 정보 공개 요청	공개	5곳 라디오 텍스트 관련 정보 송부



시청자 권익 보호

■ 시청자 권익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5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 처리 실적 검토
- 고충 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 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691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691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3	2	13	18
2		5	1	5	11
3		9	1	2	12
4		17	4	1	22
5		6	0	1	7
6		308	11	0	319
7		35	7	0	42
8		67	8	3	78
9		51	5	0	56
10		37	4	5	46
11		31	2	2	35
12		28	8	9	45
계		597	53	41	691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452건)			비제작부문(239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직원)	시청자 서비스 (난시청, IT, 서비스이용)	기타	
건수	34	26	392	178	31	30	691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27	3.9
보도 취재요청	3	0.4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323	46.7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8	1.2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21	3.0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26	3.8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73	10.6
난시청	9	1.3
경영(직원, 시설)	12	1.7
수신료	164	23.7
기타	25	3.6
계	691	100.0

7

시청자 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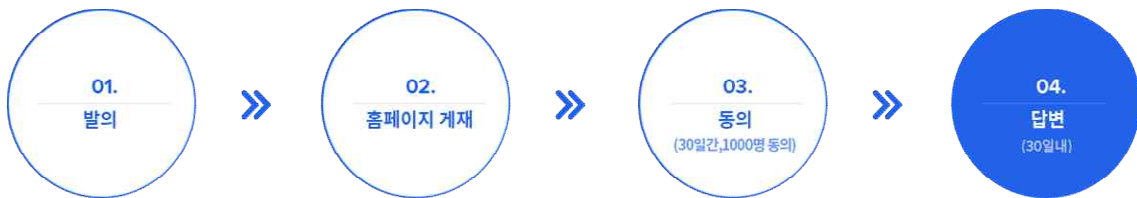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청원이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 청원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 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청자청원 절차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되며,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30일 이내에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시한다.



■ 알림서비스

청원인에게는 청원글을 게시한 경우, 청원제한이 가해진 경우,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답변이 달린 경우에 SMS,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 시청자청원 제한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시청자청원 운영세칙>을 게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해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세요.
5.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문제 게시물은 [숨김 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해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8.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9. 같은 내용으로 중복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10. 작성된 청원은 최초 청원 취지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청원 운영 세칙에 어긋난 청원 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삭제 또는 숨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183	
2		207	
3		170	
4		101	
5		163	
6		124	
7		74	
8		326	
9		71	
10		75	
11		63	
12		114	
계		1,671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²⁾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³⁾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⁴⁾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3)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4)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특보] 자료화면 제언</p> <p>- 이날 지진해일 예측정보를 알려주는 자료화면에 독도가 빠져있었다. 반면 일본에선 지진해일 주의보를 보도하며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했다.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실수에 실망스럽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재난미디어센터</p> <p>- 1월 1일 KBS 뉴스특보에서 사용한 지진해일 예측정보 지도 그래픽에서 독도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은 이유는 지도의 축척(실제 크기가 지도의 크기에 따라 줄어드는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지도에서 독도의 면적은 점 수준 이하로 줄어들어 표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자국의 지진해일 예측 범위에 두고 실제보다 과장해 표현했습니다. 이에 KBS는 영토 주권 강화 차원에서 <뉴스 9> 등 정규 뉴스에서 독도를 확대 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독도를 "의도적으로 확대 표기"함으로써 영토 주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 7] 보도 제언</p> <p>- 휴스텍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사회부</p> <p>- 확정되지 않은 '혐의'이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안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도했습니다. 회사 입장 확인하기 위해 내선 번호 찾았지만 홈페이지에 미기재 되어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 찾았지만 수개월째 문 닫혀있고, 사람 없었던 경비원 진술 있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 대표는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따라서 대표 및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제보가 KBS에 접수되어 해당 제보자를 취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경찰, 검찰 등 다수 수사기관이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 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이날 9시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도하던 중,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들어간 자료화면을 보여줬다. 앞으로는 주의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통일외교부</p> <p>- 1월 14일 북한이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를 상세하기 보도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발표는 물론, 각종 외신들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착지점에 대한 일본 방위성 발표를 보도한 외신 매체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주장 EEZ 지도가 그래픽으로 부득이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EEZ)'라고 명확히 그래픽에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9시뉴스 방송 직후, 일본 주장 EEZ 지도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것이 의도치 않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그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KBS는 앞으로 영토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외신 인용 시에, 반드시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에 표시한 우리나라 지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p>시 사 교 양</p>	<p>□ 1TV [다큐 인사이드] 편성 제언</p> <p>- 세월호 참사 10 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이 불발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했다.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큰 사건이고, 10 주기를 맞아 해당 참사를 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해서 편성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제작 1 본부</p> <p>- KBS 제작 1 본부에서는 지난 12월부터 대형참사 생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관련 다큐가 기획해 4월 방송 계획으로 제작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자 기획만 다루는 것보다 천안함 피격사건, 대구지하철 참사, 씨랜드 화재, 삼풍백화점 참사 등 다른 참사 생존자 PTSD 극복기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이후에 방송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KBS 중계석] 방송 제언</p> <p>-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쾌하고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광복절날 기모노를 티비에서 볼 수 있죠? 광복절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수신료가 이따 프로그램에 쓰이다니 기분 나쁘네요.</p>	<p>□ 담당부서 : 예능 센터</p> <p>- KBS 는 79 주년 광복절인 지난 8 월 15 일 일본의 기미가요 선율이 일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송 후 제작과 방송 경위, 편성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는 공연예술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에 푸치니의 명작 오페라인 <나비부인>이 편성·방송된 경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KBS 는 <나비부인> 방송을 통해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2)기미가요는 변주돼 반주와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나비부인>은 당초 7 월 편성됐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연기돼 광복절에 방송되었습니다. (중략) <KBS 중계석>은 공연물을 그대로 녹화 방송하고 심야에 편성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실무진들이 제작과 편성을 사실상 결정하고 방송해 왔습니다. 특히 <KBS 중계석>은 그동안 <나비부인>을 이번 방송일 전에 이미 모두 4 차례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확인하지 못한 채 광복절에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3.1 절, 6.25, 광복절, 한글날, 설날 및 추석 등 계기성 있는 시기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 시청자에게서 불편함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p style="text-align: center;">시 사 교 양</p>	<p>□ 2TV [2TV 생생정보] 방송 제언</p> <p>- 이날 특수 차량을 세차하는 대가가 고물상에서 굴착기를 세차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일반인들이 길에서 세차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 또한 일반 차량도 세차를 하면 폐수가 나오는데, 정화시설도 없는 고물상에서 특수 차량을 세차하는 장면을 어떻게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p>	<p>□ 담당부서 : 협력제작국_시사고양 1</p> <p>- 이날 출연자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세차하는 분입니다. 정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세차를 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물로만 세차하거나, 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날 방송에선 호스를 이용해 물로만 세차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굴착기의 기름때를 제거하는 장면의 경우, 물로만 세차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긁어낸 기름때를 폐기물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버렸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스포츠	<p><input type="checkbox"/> 1TV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4] 방송 제언</p> <p>- 본인은 피겨스케이팅의 팬이다. 이번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4' 경기가 실시간 중계가 아닌 딜레이 중계가 되어 실망스러웠다. 그뿐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선수들의 경기를 모두 보여주지 않았고, 높은 순위 6 명의 경기만 보여준 점도 아쉽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스포츠중계부</p> <p>- 피겨 경기 일정은 주니어·시니어 부문, 남녀 아이스댄스, 싱글 경기 등이 오전부터 스케줄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기, 정빙이 계속 이어지며 경기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편성 시간에 커버 안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자부는 라이브로 중계되었으나, 이미 경기가 종료된 남자부 주요 경기 및 여자부 일부 경기는 방송 전에 종료되어 편성 시간에 맞춰 딜레이 중계되었습니다.</p>

9

부록(강령, 규정, 지침, 기준)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 년 1 월 1 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 내용 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울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는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4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신 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년월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년월일

한국방송공사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p>*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p>			
요구사항				
<p>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KBS 고충처리인 귀하</p>				
<p>*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p>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 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결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1. **목적:** 공영방송 KBS의 주인인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청자권익을 증진하고, 시청자 신뢰 강화를 위해 구축된 '시청자 청원' 시스템을 아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2. **청원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 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관리, 업무효율성을 위해 청원글은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청원글 작성자는 작성시 분류를 선택한다.

시청자청원 사이트 카테고리 분류

분류	세부 내용	비고
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보도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외주제작, 호평, 불만, 광고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방송경영	경영사업, 계열사, 수신료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시청자권익	방송 피해(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제언 등	

4. 청원 발의 및 후속처리 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된다.
- ②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⑤-1. 공익성,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는 사안의 경우 청원성사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청원에 대한 유관부서의 신속한 답변요구 및 답변게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글 게시, 100명의 동의를 받은 이슈청원 성사 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성사 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사항을 이메일과 SMS 등을 통해 청원발의자에게 알려 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삭제 또는 숨김처리) 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첨부된 파일이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 청원
- ⑦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통신포럼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청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 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 ⑥ 관리자는 일정기간 동안 성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⑦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⑧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 내용과 관련된 부서 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 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